

505보안부대 2차 집담회

505보안부대 옛터의 보존과 활용

일시 : 2018. 10. 31. 수. 14:00 ~

장소 :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앞

주관 : 5·18기념재단

주요내용

발표 : "505보안부대 옛터의 보존과 활용" - 이수용 박사 (전남대학교)

"5·18 기억의 공간과 미래세대의 공감" - 김성훈 소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록과 예술의 경계에서 - 505보안부대 옛터 사진과 전시를 중심으로 -"

-엄수경 작가 (목요사진)

토론 : 이효원 교수 (전남대학교)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05보안부대 2차 집담회 - 발표 I

505보안부대 옛터의 보존과 활용

전남대학교
이수용 박사





505보안부대 옛터의 보존과 활용

-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015년) 을 중심으로 -

목 차

1.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2015) 개요
2. 505보안부대 옛터의 현황
3. 505보안부대 옛터의 보존과 활용방안
4. 제언

부록, 실측도면 및 현장사진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²⁰¹⁵⁾ 개요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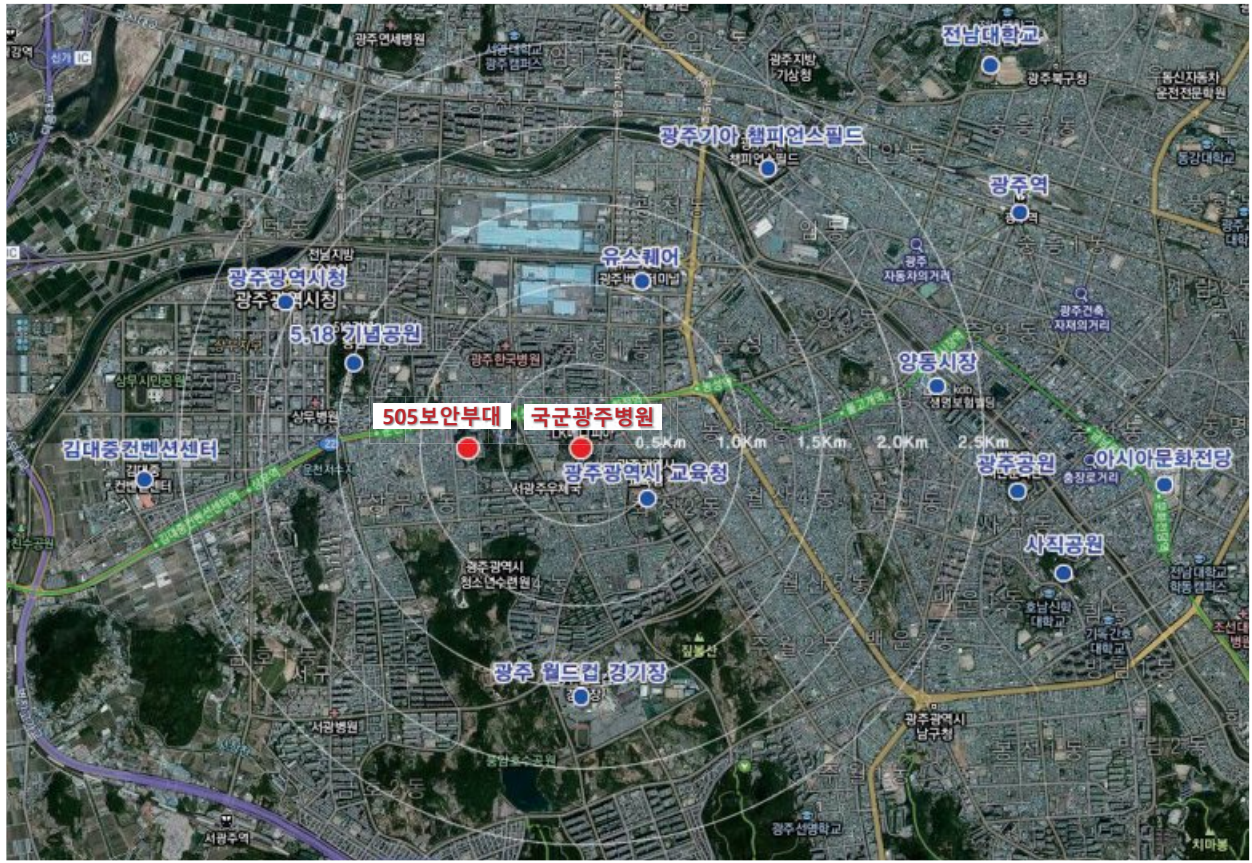
- 5·18기념사업 및 기념행사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전문가·시민의 평가 등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10~'14년(5년) 동안 추진한 5·18기념사업(행사) 및 국고보조사업의 분석·평가
 - 5·18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의 개별 기념행사의 연계성 및 성과분석
 - 5·18기념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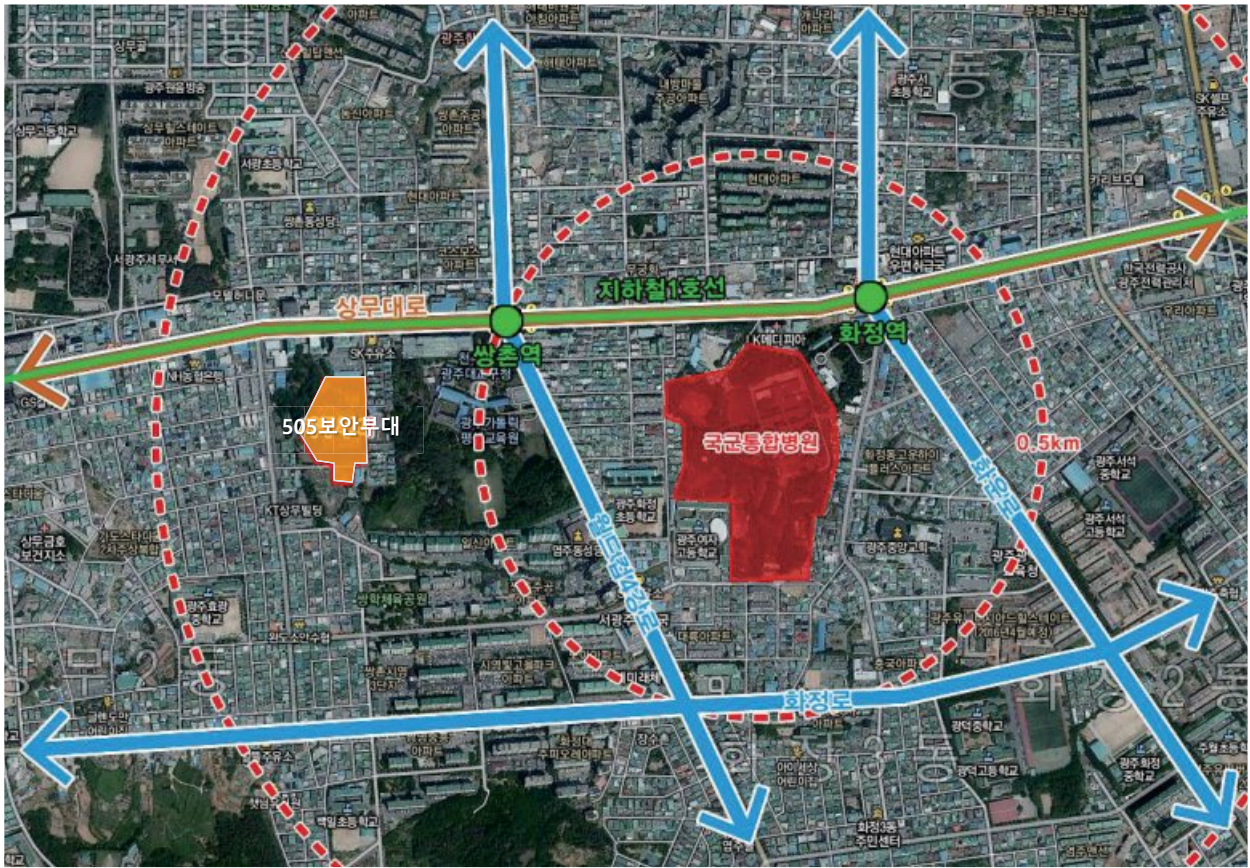
- 5·18사적지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방안과 사적지 보수 및 정비방향 모색
 - 광주광역시 일원 사적지 현황조사(토지, 건물 등) 및 분석
 - 사적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분석
 - 5·18사적지 활용 방안 및 기본방향 수립

- 국군광주병원 옛터 및 505보안부대 옛터 활용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 활용 방향 및 목표에 대한 기본 구상 설정
 - 도입시설 기본계획 수립

국군광주병원 및 505보안부대 옛터 대지현황 및 개요

구 분	국군광주병원 옛터 (5-18사적지 23호)		505보안부대 옛터 (5-18사적지 26호)	
위 치	서구 화정동 325 일원		서구 쌍촌동 993-1 일원	
규 모	토지	94,095m ² (28,436평) / 7필지	토지	32,911m ² (9,956평) / 18필지
	건물	병원 본관 등 36개 동	건물	관사 등 16개 동
용 도 지 역	자연녹지 (화정근린공원)		자연녹지 (5-18역사공원)	





국군광주병원 옛터

대지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25
 규모 : 94,095㎡(28,463평) / 7필지 건물 36동
 이전시기 : 2007년 5월
 현실태 : 5·18 사적지 23호('98.1.12)



505보안부대 옛터

대지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3-1
 규모 : 32,911㎡(9,956평) / 18필지 건물 14동
 이전시기 : 2005년 11월
 현실태 : 5·18 사적지 26호('07.6.27)

505보안부대 옛터의 공간적 의미

- 국군광주병원 옛터(서구 화정동 325 일원)는 5·18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시민들을 수용해 치료하고 강제로 조사했던 장소임
- 505보안부대 옛터(서구 쌍촌동 993-1 일원)는 5·18 당시 학생 지도부 및 민주인사, 시민군 등을 체포해 고문 수사했던 곳으로 진압작전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장소임
- 5·18 사적지는 항쟁의 전체 과정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공간이지만, **개별 사적지는 각자의 역사적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차별적인 고유의 공간임**
-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는 5·18 사적지로서 **5·18과 관련한 기억의 터**
-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시민의 생활영역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임

공간활용을 위한 전제

첫째, 기존 연구의 성과를 계승 발전

“5·18 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2012)

- 사적지에 대한 원형 보존의 원칙
- 친숙성·접근성·주민 참여를 고려한 활용방안 도출
-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 연계 고려
- 광주시 도시발전 목표와 연계한 활용 방안 수립 등

기존 연구 활용의 원칙

: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산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재구성

- 사적지가 일상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연계된 삶의 공간으로 시민과 상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활용
- 사적지를 공공적 차원에서 교육,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삶의 연계성을 높임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2012), p. 49

공간활용을 위한 전제

둘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5·18의 재활성화에 기여

-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부대가 갖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과 5·18기념사업의 새로운 지향성을 고려한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 구성
- 5·18 기념사업의 제도화로 정체된 5·18이 재활성화 될 수 있도록 5·18관련 단체, 시민의 현실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공간으로 활용

셋째, 단절되는 5·18에서 통합되는 5·18을 위한 기억과 공간의 공유

- 5·18의 기억이 세대를 넘어 창조적으로 전승되지 못하고 직접적인 경험 주체들만의 기억으로 단절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공유되는 공간 조성

공간활용의 주요원칙과 기본방향

기억과 장소의 보존

공간이 갖고 있는 5·18의 역사를 사실성과 현장성의 객관화라는 측면에서 주요 공간을 원형 보존

- 향후 5·18사적지 관리와 기념사업을 5·18기록문화의 형성의 관점에서 아카이빙 함

5·18의 시민성 강화

고통의 기억과 상처 등을 치유함으로써 5·18이 남긴 미해결 과제를 광주 시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간

- 치유시설 활용 고려

공간공유로 공동체 가치 제고

5·18 관련자, 시민, 미래세대 등이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5·18기억공동체의 외연을 확대하고 연대성 강화

- 5·18탐방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시민공원고려

기존 활용방안 논의에 대한 검토

기존 논의

- 광주국군병원 부지 **시민공원**으로 _ (2003.06.10. 오마이뉴스)
- 광주 서구 국군병원 터 시민공원으로 _ (2007.04.18. 동아일보)
- 광주 '금싸라기 땅' **쉼터** 변신 _ (2008.09.23. 경향신문)
- 옛 통합병원 부지 **아시아예술교류센터** 추진 본격화 _ (2011.03.20. 뉴시스)
- 5.18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생기나 _ (2011.05.18. 연합뉴스)
-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부지 방치... 우범지대로 전락하나 _ (2012.04.22. 노컷뉴스)
- 국방부 소유 부지 276만㎡ 시민 품으로 _ (2014.02.24. 노컷뉴스)
- 국군광주병원 부지 **어린이·청소년 공원**계획 수립해야 _ (2014.03.04. 광주드림)
- 국군병원·기무부대 터를 **인권병원**으로 _ (2014.04.16. 한겨레)
- 민원현장 - '해충 득실' 광주 도심 속 옛 국군통합병원 _ (2014.07.31. 무등일보)
- 광주 노후 공공건물 새 문화명소 변신 _ (2015.01.12. 광주매일신문)
- 광주시 옛 국군병원·기무부대 활용안 용역 추진 _ (2015.05.28. 광주드림)

기존 활용방안 논의에 대한 검토

-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는 기본 기능을 전제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5.18 요양병원, 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 등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 등이 제안되어 왔음
- 상대적으로 505보안부대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특정 목적의 공간은 아직 제안되지 않음

5.18 사적지에 대한 활용 문제는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 5.18의 미래가치의 확장 등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함

공간활용의 대안 검토

	국군광주병원 옛터	505보안부대 옛터
	치유+요양+어린이 꿈의 공원+시민공원	시민생활공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의 역사성과 함께 다기능성을 부여해 공간의 공유 효과 높음 - 치유공간 전문성 약화, 공간의 상징적 통일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원 조성으로 통제된 공간이 시민,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효과 큼 - 반면 5.18의 역사성을 살리는 방안이 부재함
	치유+요양+문화예술창작+시민공원	문화예술창작 + 시민생활공원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 공간 구축 가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창작공간과의 공간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저하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공간으로 특정 기능을 부여하여 문화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와 단기간 내에 활성화 가능성이 큼 - 5.18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방안 부재
	치유 요양시설+시민 치유의 숲	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5.18역사체험교육 공간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폭력 치유공간으로써의 전문기능 극대화 - 5.18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간 기능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음 - '치유의 숲' 개념으로 구성됨으로써 치유와 회복 기능을 통해 5.18과 시민이 결합될 수 있는 효과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의 공유 효과 - 5.18의 세대간 전승을 위한 교육 기능 부여 가능 - 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 친화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지역사회 요구 실현 가능 - 경사진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입체적 놀이 체험 공간 조성 가능

기존 활용방안 논의에 대한 분석

국군광주병원 옛터

- 국군광주병원은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전문 기관의 입지로 광범위하게 거론되어 왔음
- 광주시 또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트라우마 치유시설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군광주병원은 5·18당시 고문과 구타를 당한 시민들을 치료했던 역사성을 고려하면 **국가폭력의 피해를 치유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온갖 비방과 왜곡으로 상처받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시민의 숲 개념**으로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국군광주병원 내부에 오랜 기간 동안 조성된 녹색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치유 시설과 광주시민을 위한 치유의 숲** 개념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공간의 기능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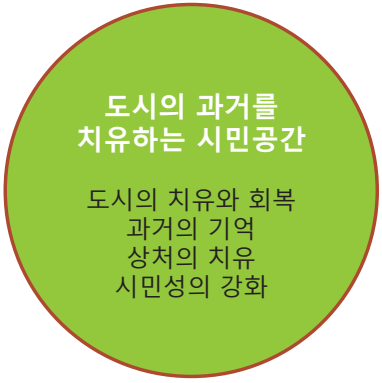
기존 활용방안 논의에 대한 분석

505보안부대 옛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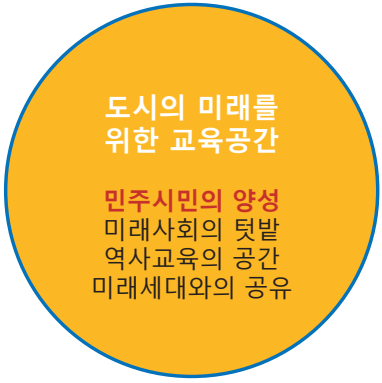
- 기존에 제안되었던 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의 기능을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담당함으로써 국군광주병원이 광주시민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특성화될 수 있음
- 505보안부대는 5·18의 기억이 미래 세대에 전승되어 5·18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체험과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
- 평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레벨로 연결된 **경사지 지형**의 특성상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입체적인 체험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한 장점

공간활용의 의미부여

국군광주병원 옛터



505보안부대 옛터



- 5·18의 제도화 과정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5·18의 치유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치유의 공간'
ex. 치유 시설, 요양 시설
- 5·18의 당당한 주체였지만 5·18기념사업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한 '기억과 휴식의 공간'
ex. 시민의 녹색 휴식공원

- 5·18 기억공동체의 확대와 5·18의 미래 지속성의 강화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과 공감하는 공간'
ex. 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 역사교육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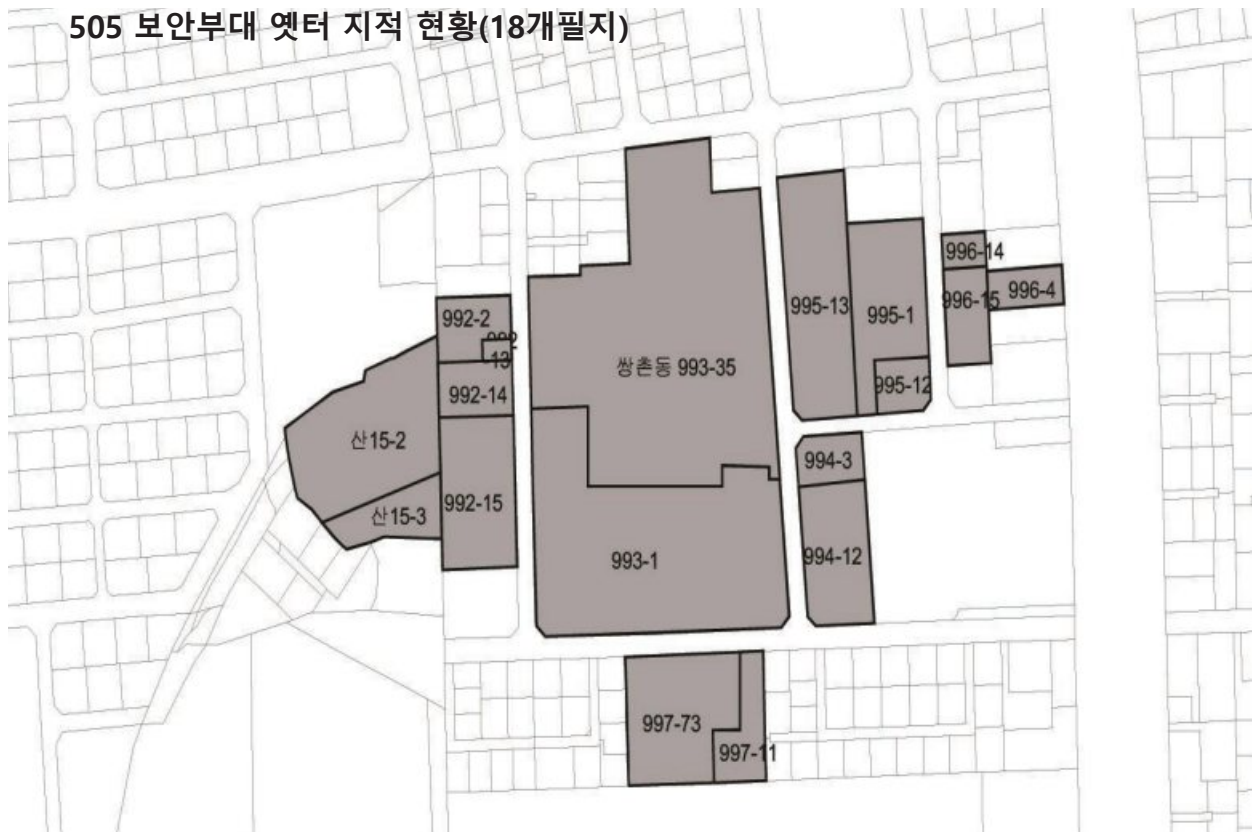
505 보안부대 옛터의 현황

505보안부대의 연혁과 이양과정

505보안부대 옛터 (5·18사적지 26호)	
1971	현재 위치에 기무부대 입지
1980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의 실질적 지휘부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505 보안대가 주둔했던 5·18 관련 핵심장소이며, 민주인사들을 연행, 구금, 고문했던 역사적 현장
2005. 11.	기무부대 광주시 오치동 31사단으로 이전
2007. 5.31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옛 기무부대 시민의 품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2007. 6. 8	광주기무부대 역사공원추진위원회 1차 회의
2007. 6.26	광주시 사적지로 지정(전남대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 검토, 사적지보존 심의 위원회 심의)
2007. 6.27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7. 7. 2	광주시 공원녹지과, 국방부에 역사공원 조성방침을 통보
2007. 10. 22	기무부대 이전부지 역사공원 활용을 위한 간담회
2007. 10.24	청와대.국방부.광주시 무상양여 협의
2014. 2.24	광주시와 국방부간 1/2 무상양여, 1/2 매입 협의

*조동범, 2014, p.10 보완 재구성

505 보안부대 옛터 지적 현황(18개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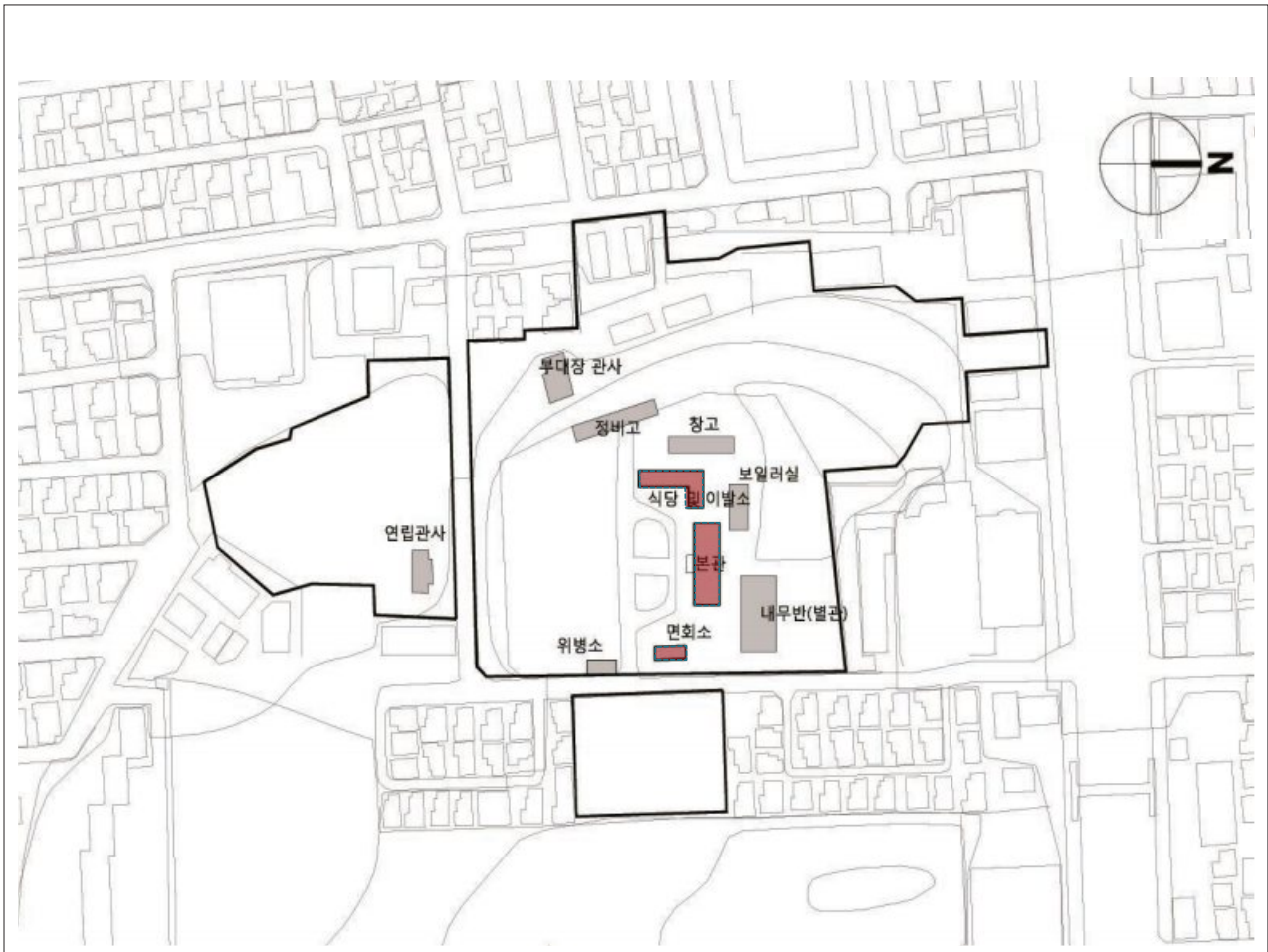


505보안부대 옛터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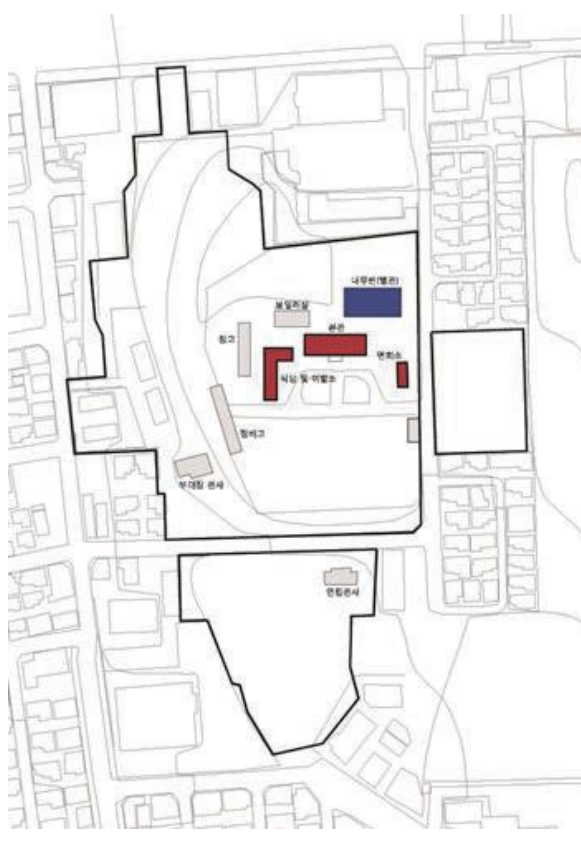
505보안부대 옛터의 지형





505 보안부대 옛터 존치 건축물의 개요

지 번	면 적(m ²)	준공연도	용 도	비 고
계	3,388.04		16동	
쌍촌동 992-2	357.84	91. 12 .19	연립 관사	
	153.4	90. 11. 30	부대장 관사	
쌍촌동 993-1	115.92	89. 11. 30	부대원 관사	
	115.92	89. 11. 30	부대원 관사	
	115.92	89. 11. 30	부대원 관사	
	115.92	89. 11. 30	부대원 관사	
	217.2	75. 4. 23	식당 및 이발소	화재로 인한 파손
	168	75. 5. 1	창 고	
	3	75. 5. 1	화장실	
	45.4	81. 1. 15	목욕탕	
	849.62	90. 11. 30	별관 및 내무반	
	763.7	75. 4. 23	본관	
	65.4	75. 8. 1	면회실	
	48	81. 1. 15	보일러실	
36.8	81. 1. 15	위병소		
216	90. 11. 30	정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연립관사	357.84	화장실	3
위병소	36.80	목욕탕	45.4
본관	763.70	보일러실	48
면회실	65.40	부대장 관사	153.4
부대원 관사	115.92	차량정비고	216
식당 및 이발소	219.77	내무반 별관	849.62
창고	168		
색인	내용		
	5·18 민주항쟁 직접관련 건물		
	공원 지원시설로 활용 가능한 건물		
	사회적 합의에 의한 활용여부 검토 건물		

본관(75.4.23)





본관(75.4.23)



본관(75.4.23)



본관(75.4.23)



본관(75.4.23)

내무반 별관(90.11.30)



내무반 별관(90.11.30)





식당 및 이발소(75.04.23)



식당 및 이발소(75.04.23)





차량정비고 (90.11.30)



연립관사 (91.12.19)

505 보안부대 옛터의 보존과 활용방안

505보안부대 옛터 부지 활용방안

5·18 역사교육의 공간 + 어린이를 위한 꿈의 공원

‘도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공간 / 미래사회의 텃밭 / 민주시민의 양성’

1. 5·18 역사체험을 통한 교류학습창작공간 (기존 본관 및 내무반 별관활용)

- 5·18 역사체험을 통해 후속세대의 민주, 인권, 평화의 의미 고취
- 창작 활동을 통한 청소년 커뮤니티 활성화
- 기존 관사를 활용한 ‘민주순례자의 집’ 조성(5·18 순례자들의 게스트하우스), Info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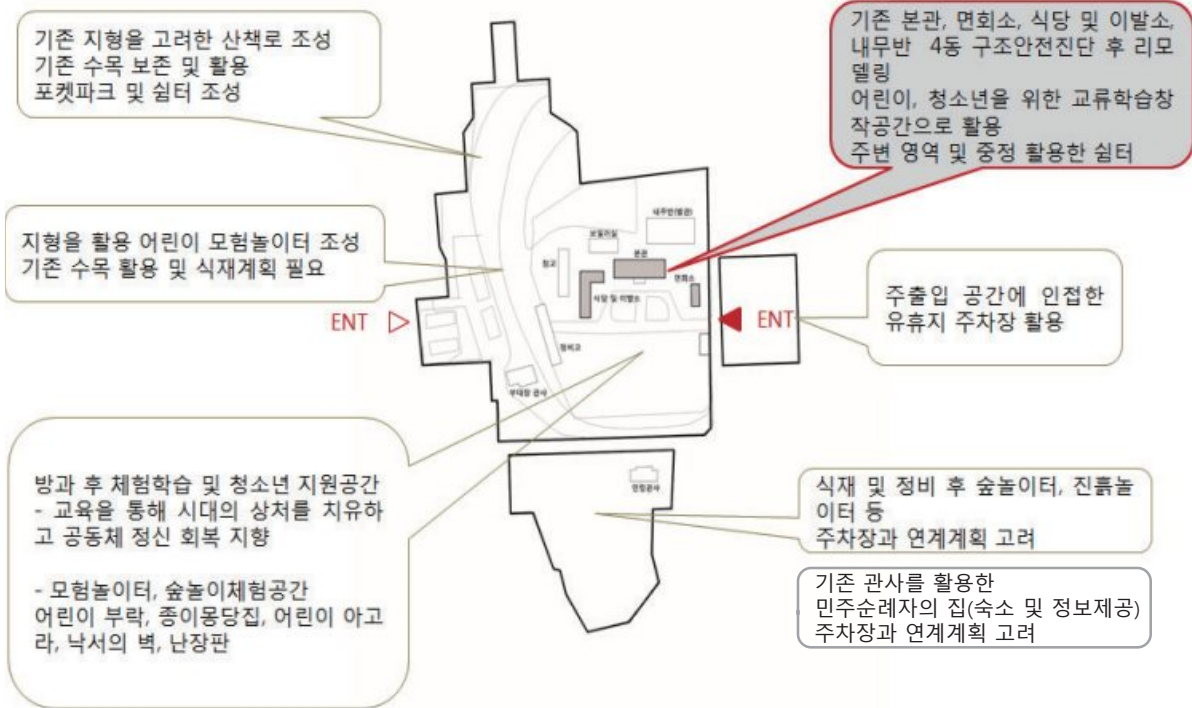
교류학습창작공간, 다락방, 옥상정원 등

2. 어린이를 위한 꿈의 공원 (외부공간활용)

-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
- 역사와 문화, 교육과 창업이 공생하는 공간
- 방과 후 체험학습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공간
- 교육을 통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

어린이 부락, 종이 몽당집, 어린이 야고라, 낙서의 벽, 난장판 진흙놀이터 등

505보안부대 오프 활용방안(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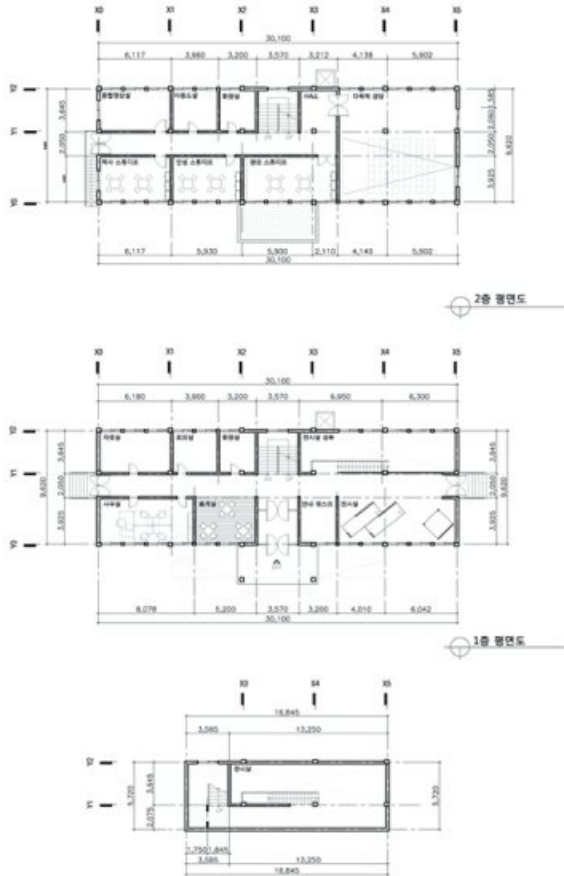
5·18역사체험 창의센터(가칭) 기존 본관(75.04.23)

- 5·18기억공동체의 확대와 5·18의 미래 지속성의 강화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과 공감하는 공간
 - *5·18의 기억이 미래 세대에 전승되어 5·18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체험과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
 - 5·18역사체험을 통해 후속세대의 민주, 인권, 평화의 의미 고취.
 - 개인의 성공 지향적 창의성 훈련을 넘어 더불어 사는 창의교육 필요.
 - 사회변화로 골목놀이문화 쇠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공간과 관계의 회복 필요.
 - 창작 활동을 통한 청소년 커뮤니티 활성화.
- 방과 후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

5·18역사체험 창의센터 space program(안) / 기존 본관(75.04.23)

분류	실명	면적	실수	계
어린이/청소년 역사체험영역	전시실	71.20	2	142.41
	자료실	22.52	1	22.52
	회의실	14.22	1	14.22
	종합영상실	22.30	1	22.30
	다용도실	14.43	1	14.43
	다목적강당	96.58	1	96.58
스튜디오 영역	창의스튜디오	31.45	1	31.45
	인성스튜디오	23.28	1	23.28
	역사스튜디오	24.01	1	24.01
지원영역	사무실	31.70	1	31.70
	안내데스크	12.56	1	12.56
	휴게실	20.41	1	20.41
공용공간	복도/코어/홀 등			171.29
총계				627.16

5·18역사체험 창의센터 계획안 기존 분관(75.04.23)



1층 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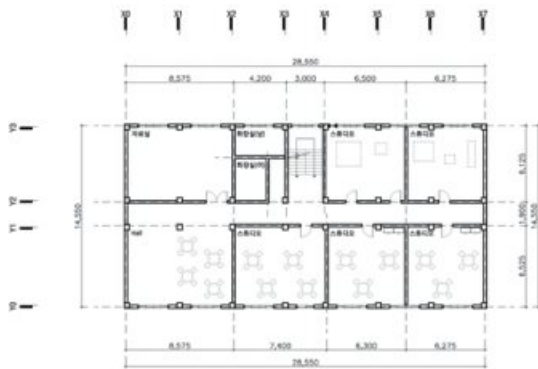
지하층 투상도



꿈의 공원 창작스튜디오 space program(안) / 기존 내무반 별관(90.11.30)

분류	실명	면적	실수	계
전시영역	전시실	185.88	1	185.88
	자료실	52.52	1	52.52
관리영역	회의실	28.55	1	28.55
	사무실	52.52	1	52.52
	스튜디오	41.71	5	208.58
스튜디오	휴게실	26.75	1	26.75
	공용공간	복도/코어/홀 등		276.02
총계				830.82

꿈의 공원 창작스튜디오 계획안 기존 내무반 별관(90.11.30)



어린이 청소년 꿈의 공원 (가칭)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모험 놀이터는 완성된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이 창조하여 완성을 시키는 놀이터
-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설치물들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모험하는 공간으로 경험하고 지혜를 터득해 나감
- *방과 후 체험학습 및 청소년 지원공간으로 활용하여 교육, 체험, 놀이를 통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정신 회복 지향*
- 어린이 부락, 종이몽당집, 어린이 아고라, 낙서의 벽, 난장판 진흙놀이터, 왁자지껄 놀이터, 우당탕탕 모험마을 등



맺으며

505 보안부대 옛터의 활용에 대한 제언

- 1)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의해 보존지정이 된 건물 과 그 외 기존 건물의 활용 및 공원 조성에 대한 합리적 대안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 정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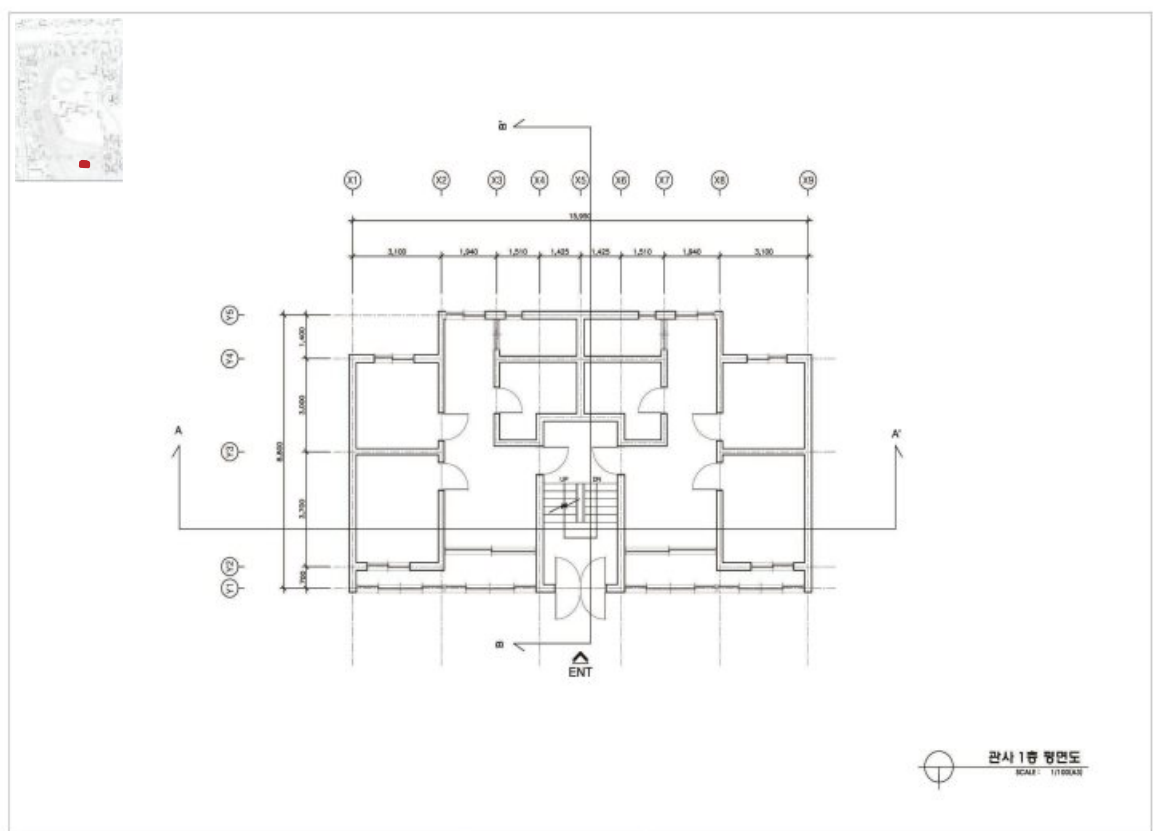
- 2)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가꾸고 즐기기 위한 과정중심의 활용전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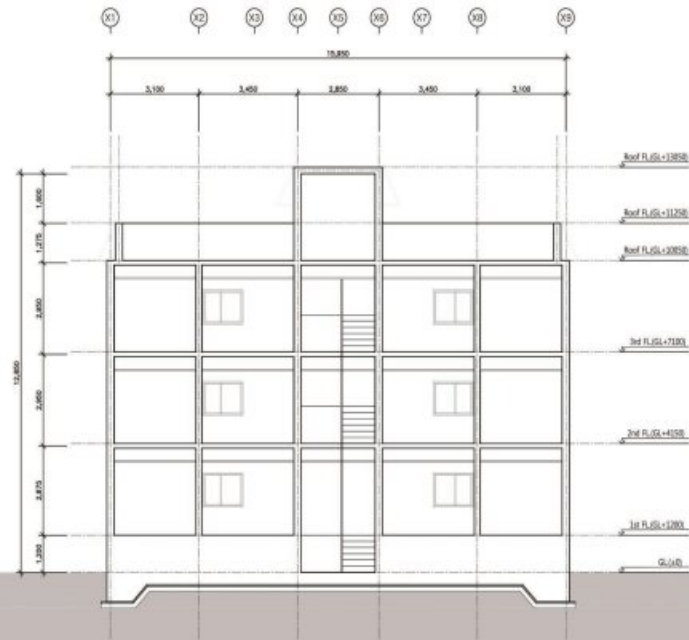


- 3)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인식과 함께 505 보안부대 옛터가 갖는 땅의 역사와 사회성 등을 다층적 차원에서 조사 정리 축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는 광주의 도시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상무대를 비롯한 여러 군 시설들이 이전했음에도 이에 관한 자료와 기록이 거의 없음을 유념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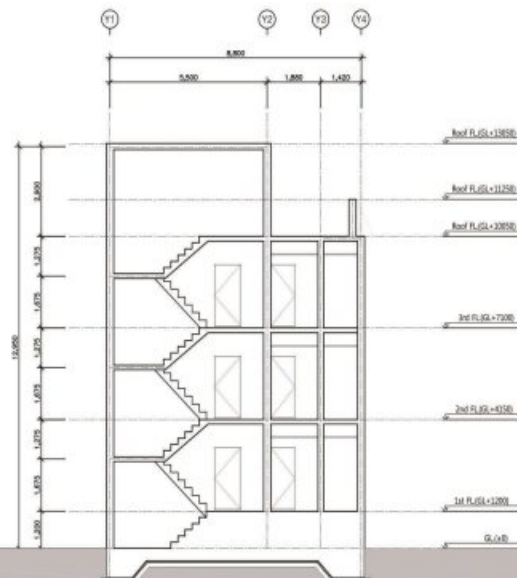
실측도면 및 현장사진

관사





관사 A-A' 단면도
SCALE: 1/100A2



관사 B-B' 단면도
SCALE: 1/100A2



X1 X2 X3 X4 X5 X6 X7 X8 X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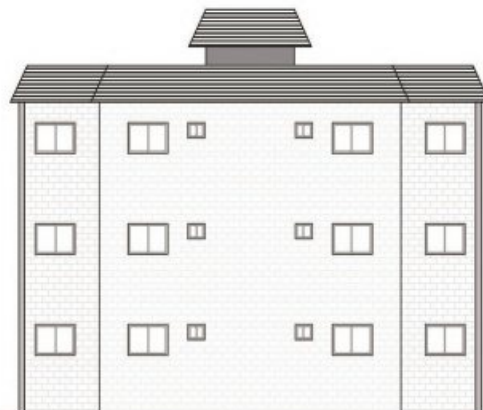


Roof F.L.G. = 10000
3rd F.L.G. = 7100
2nd F.L.G. = 4100
1st F.L.G. = 1200
G.L. 00

관사 정면도
SCALE : 1/100(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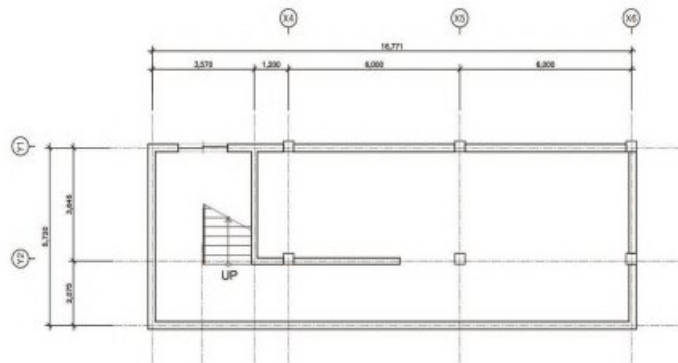
X6 X5 X4 X3 X2 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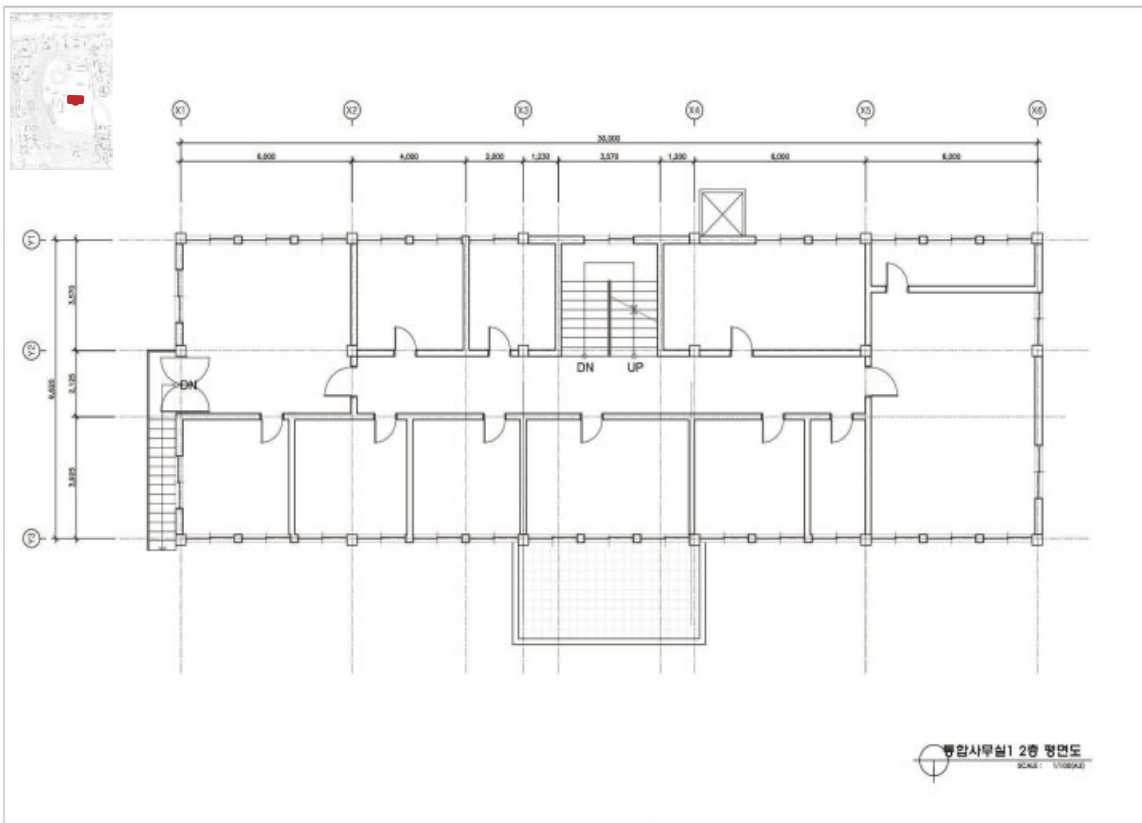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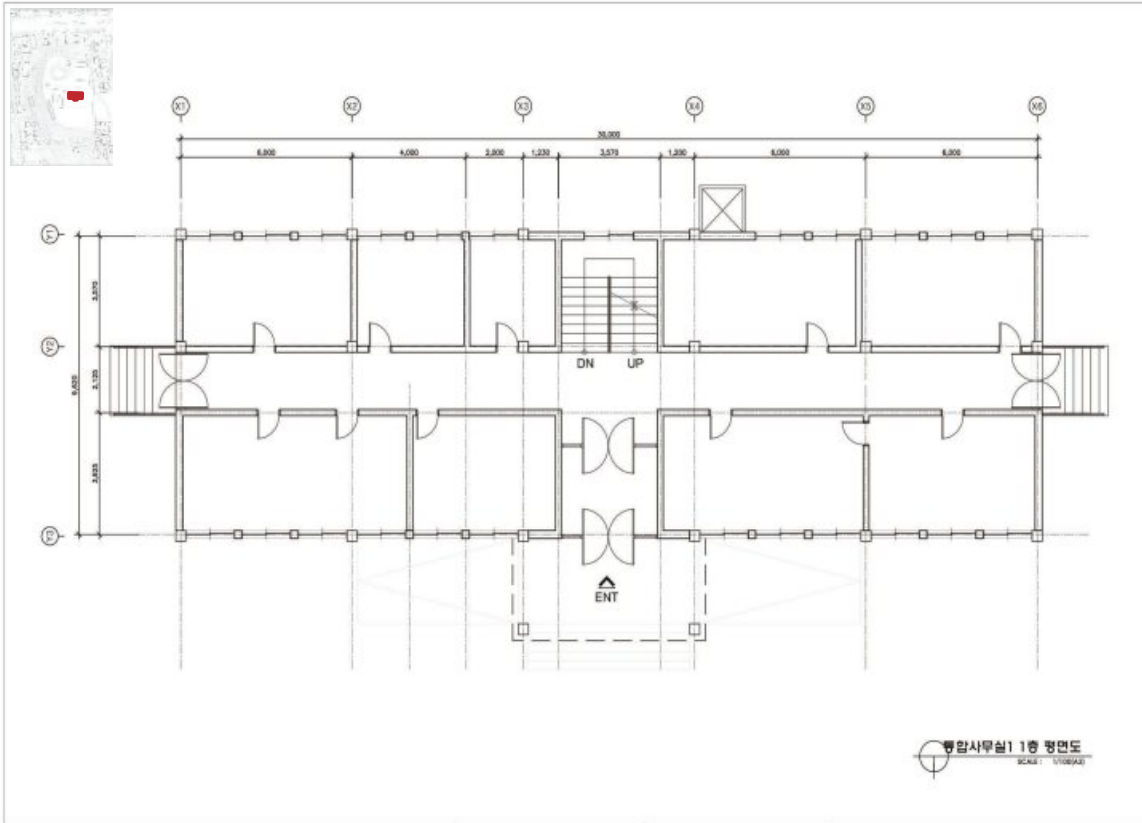
Roof F.L.G. = 10000
3rd F.L.G. = 7100
2nd F.L.G. = 4100
1st F.L.G. = 1200
G.L.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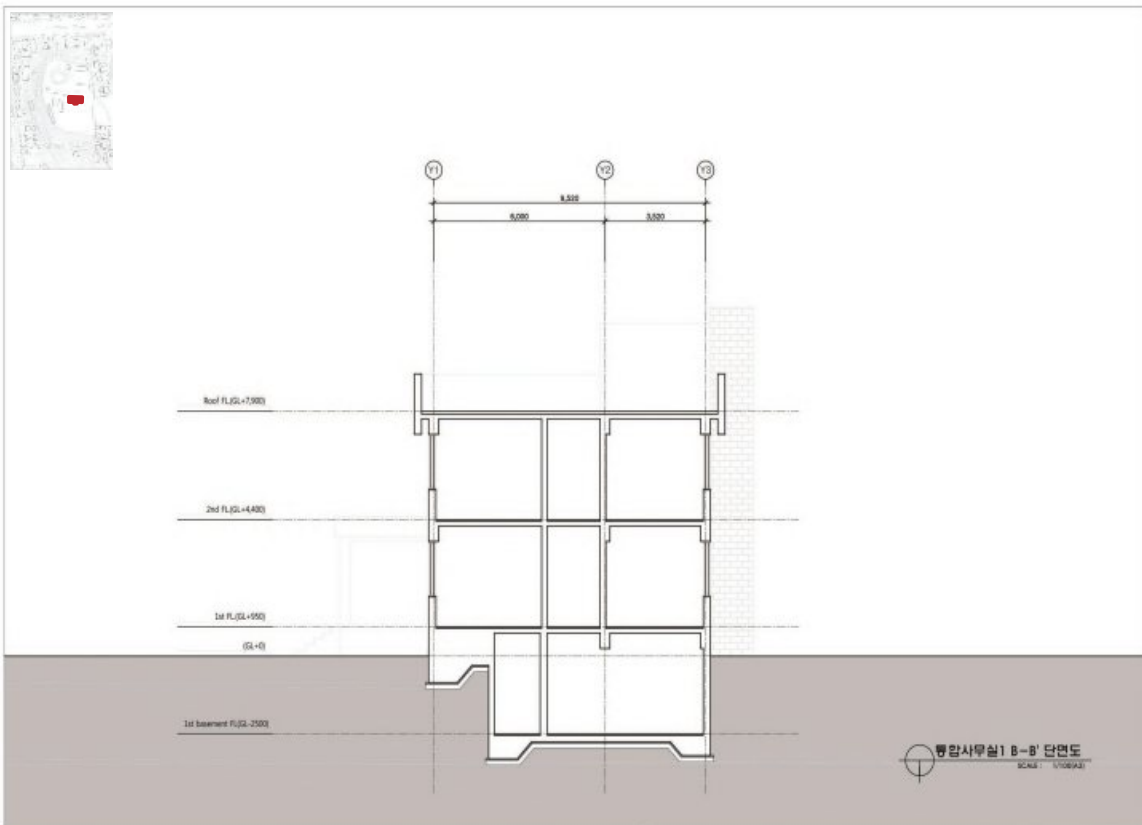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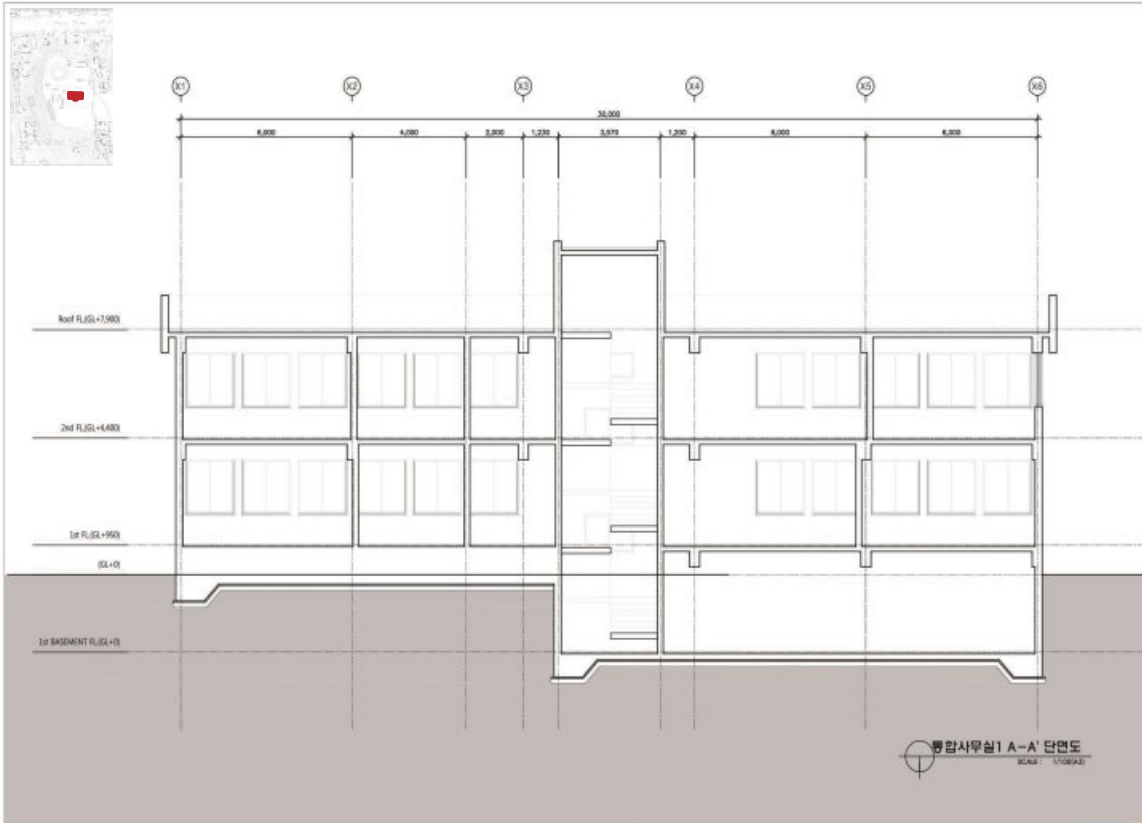
관사 배면도
SCALE : 1/100(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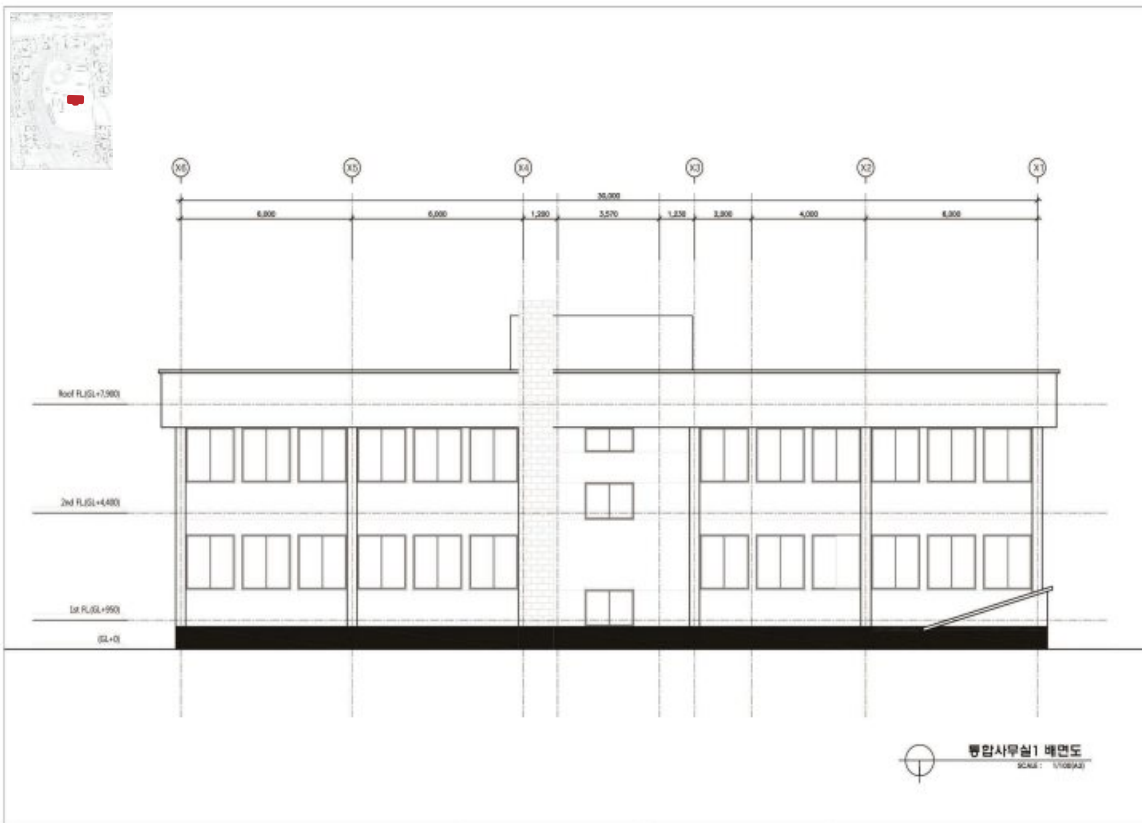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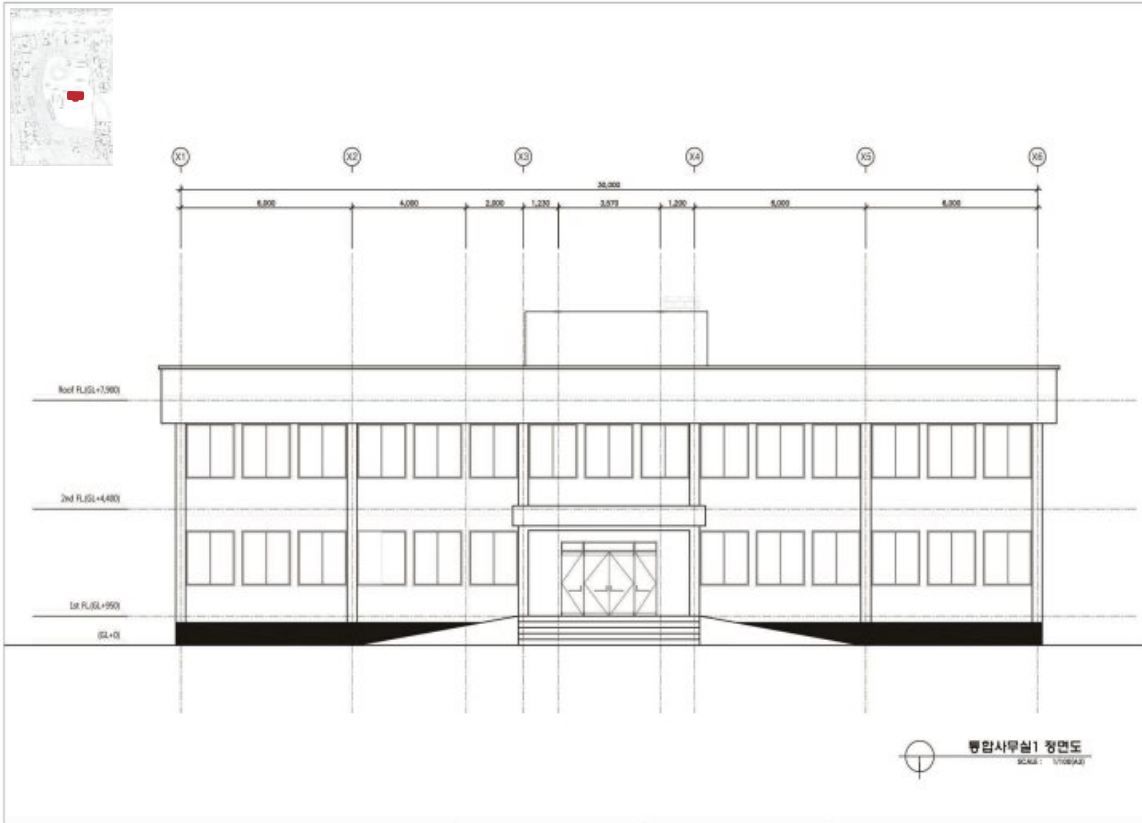
통합사무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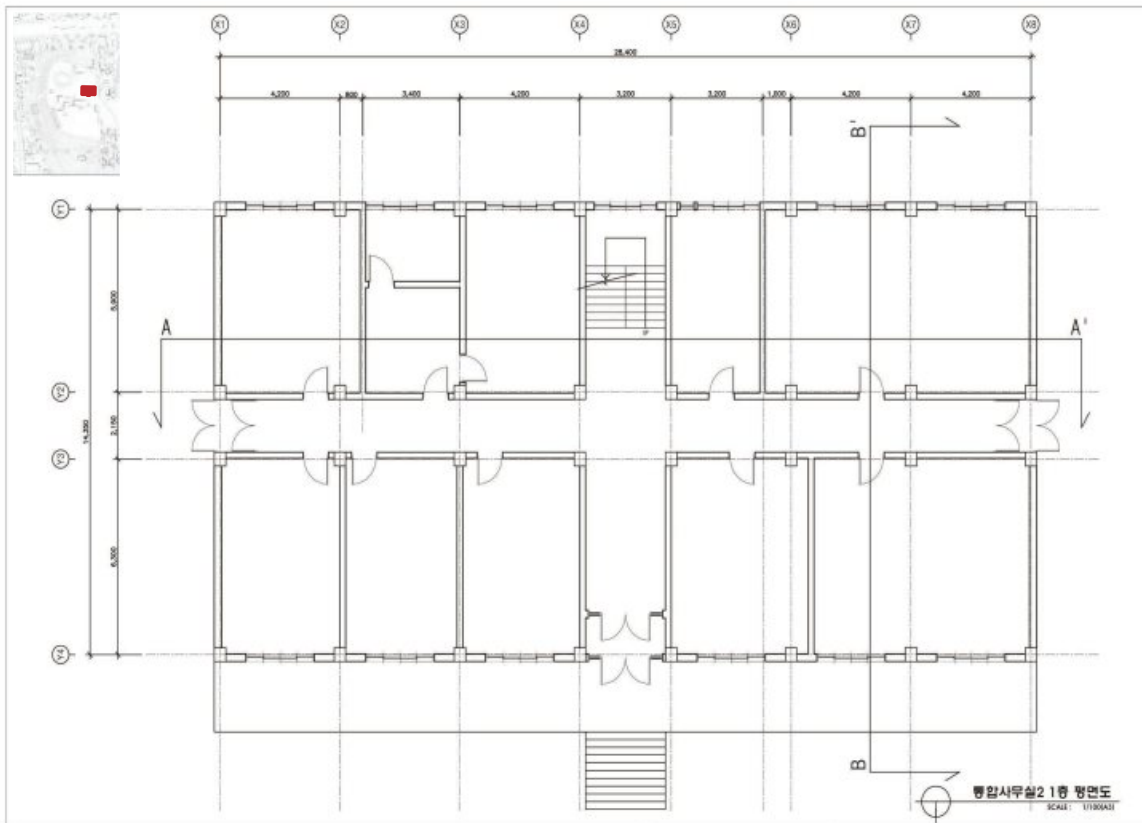
통합사무실1 지하1층 평면도
SCALE: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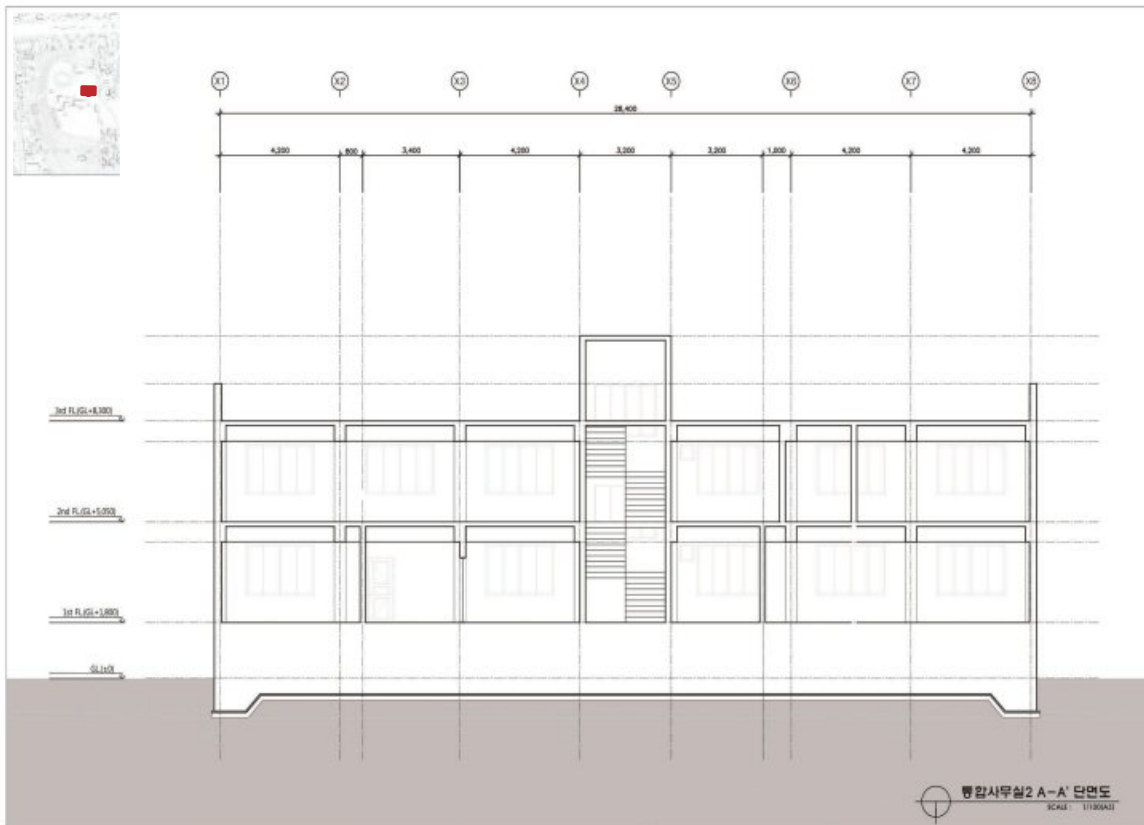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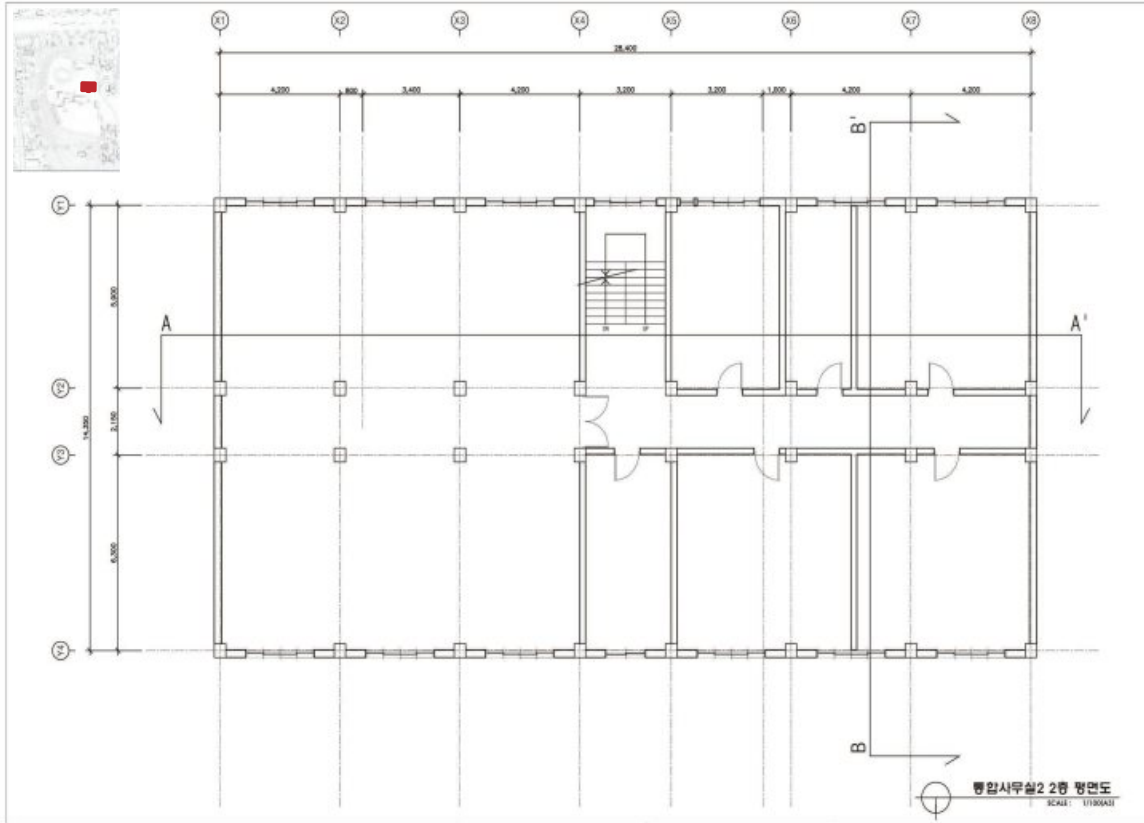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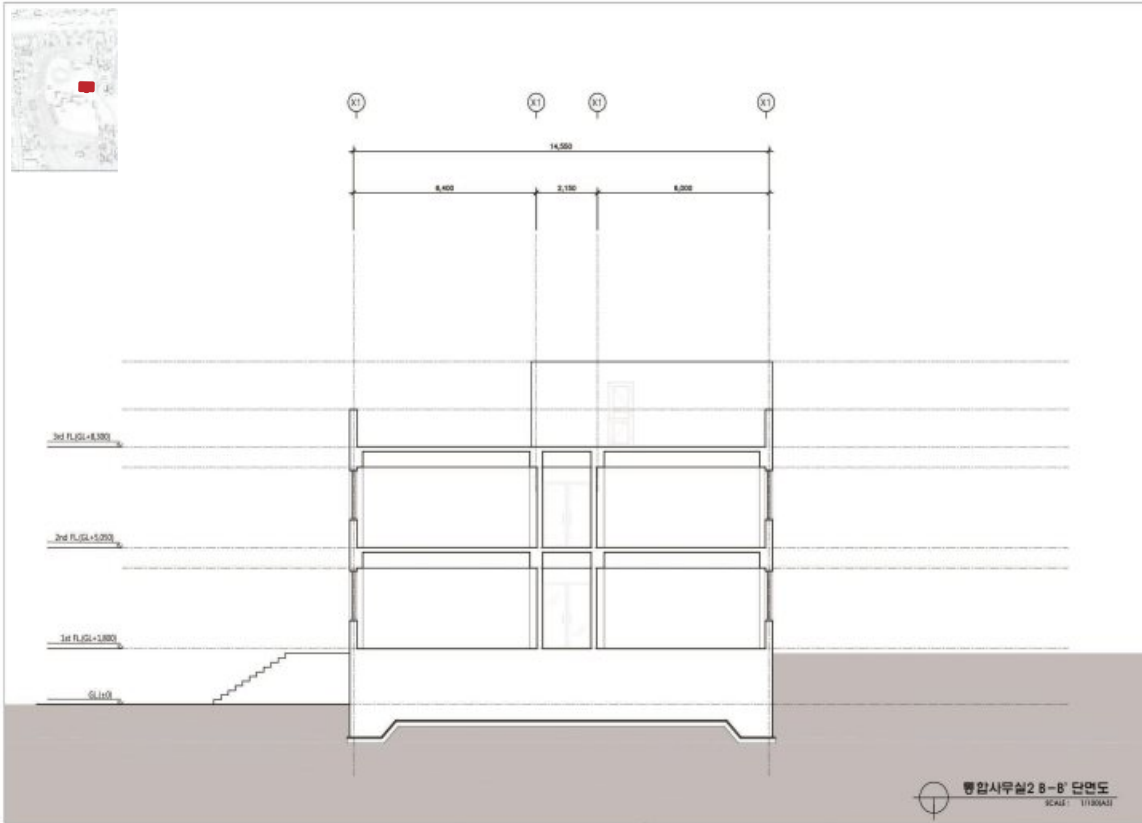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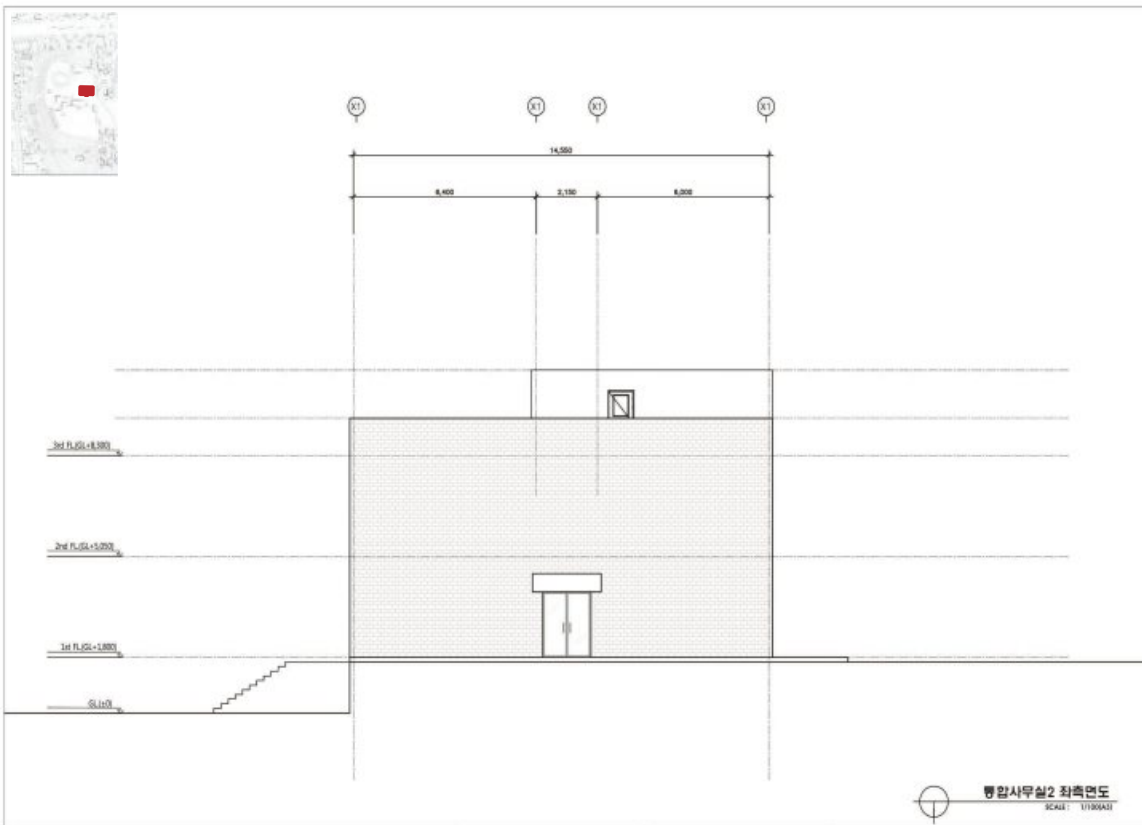


통합사무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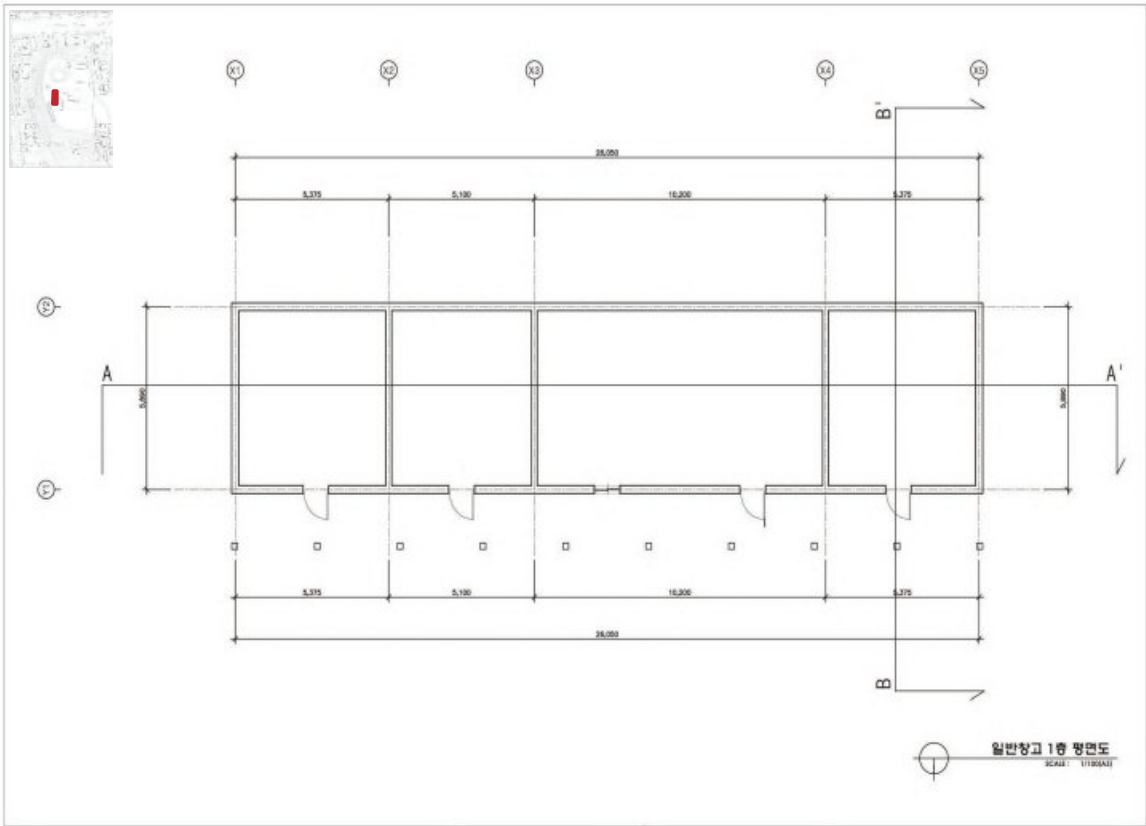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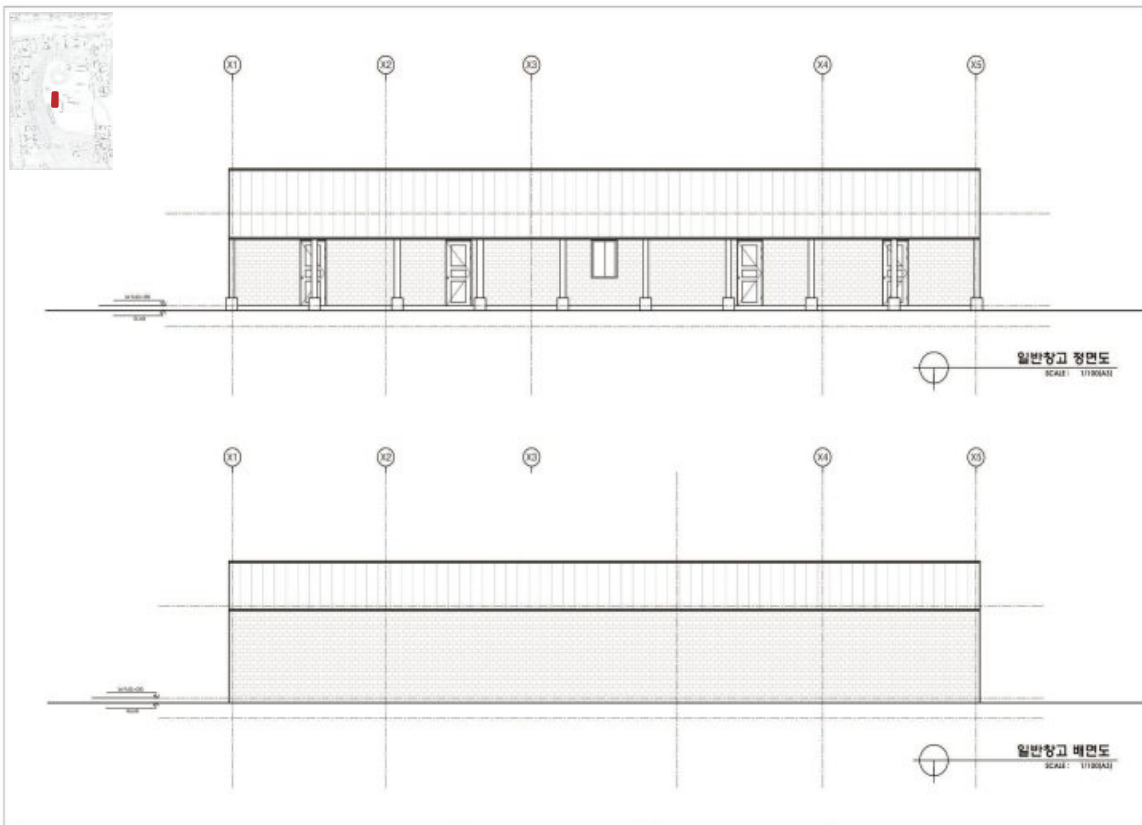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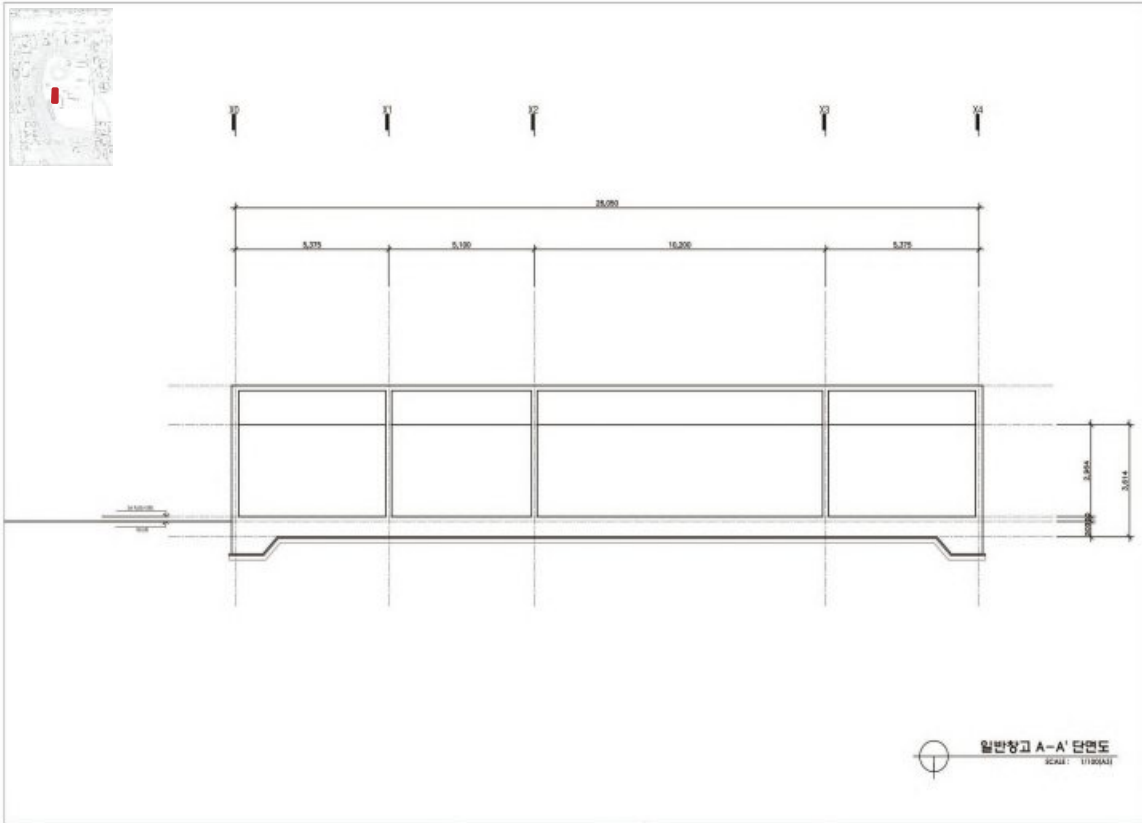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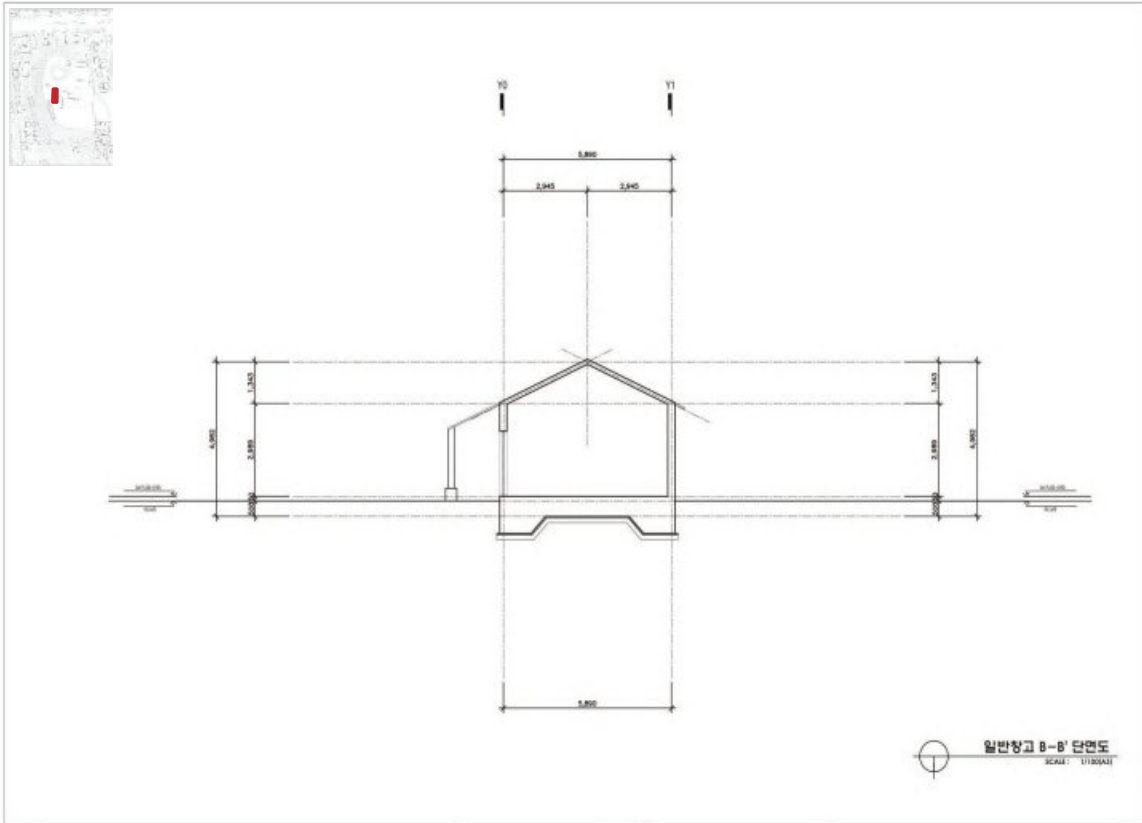




일반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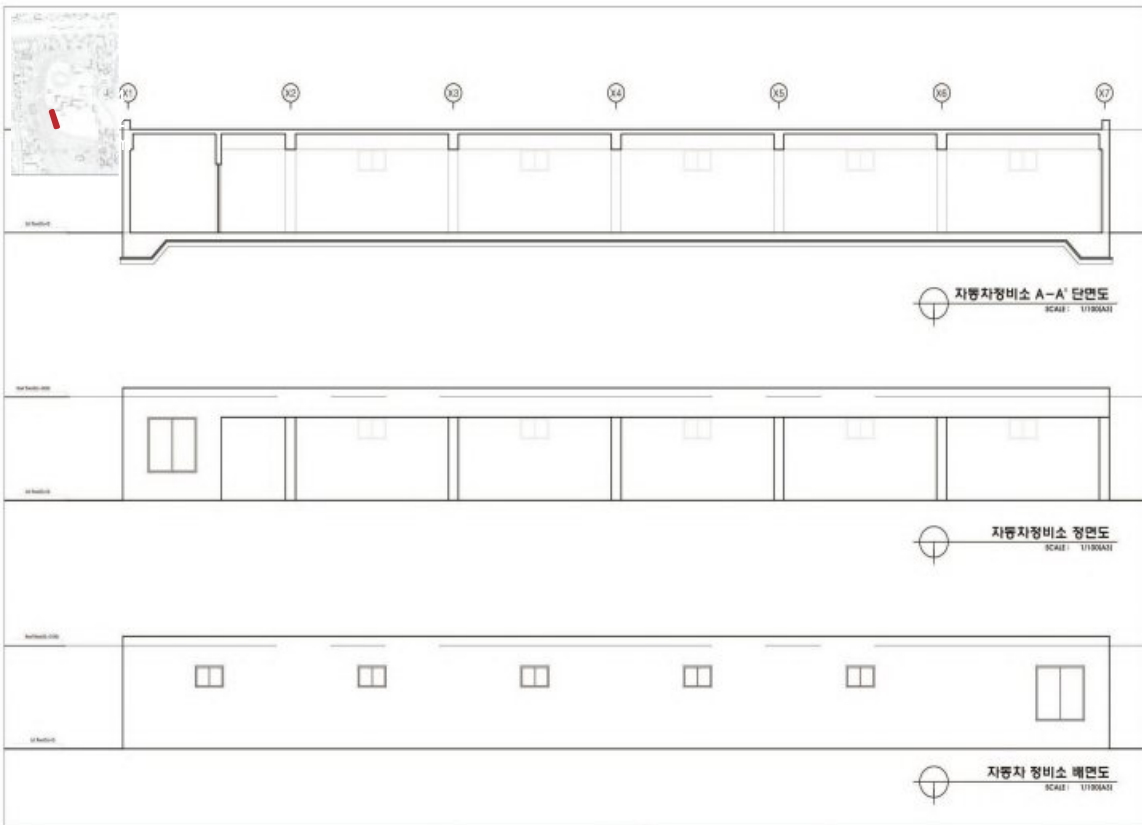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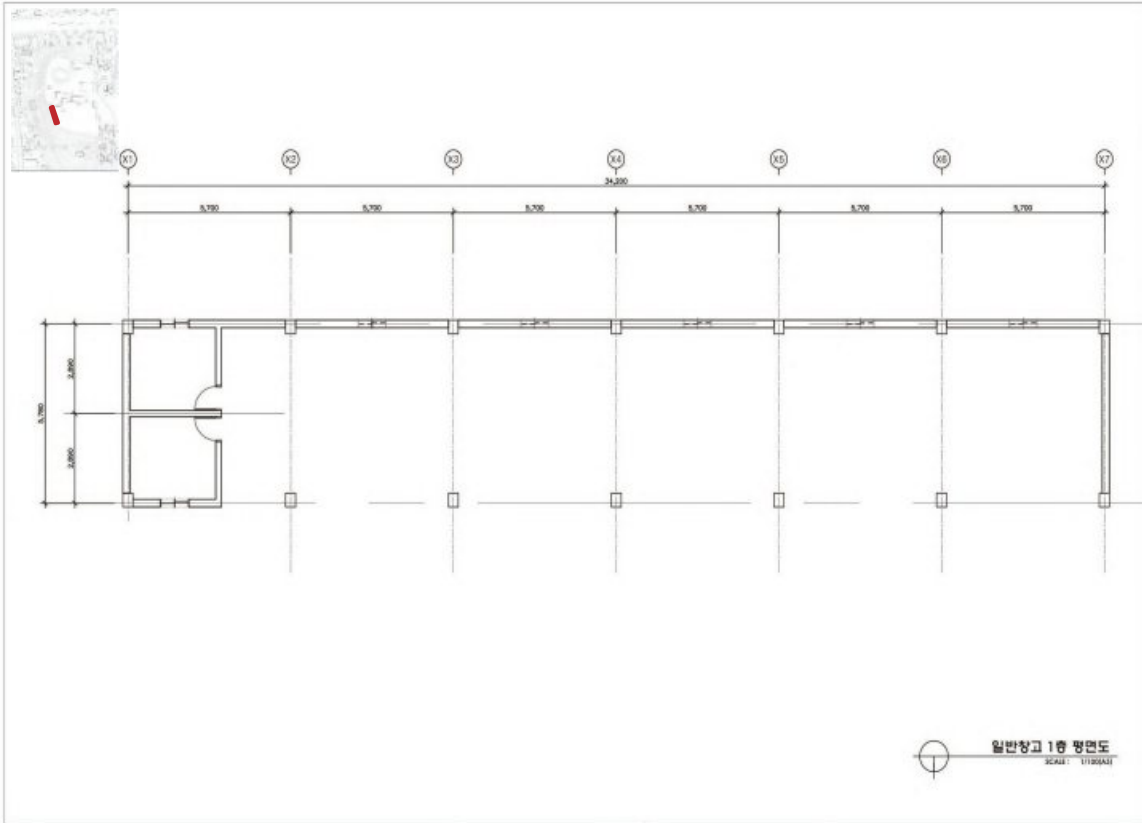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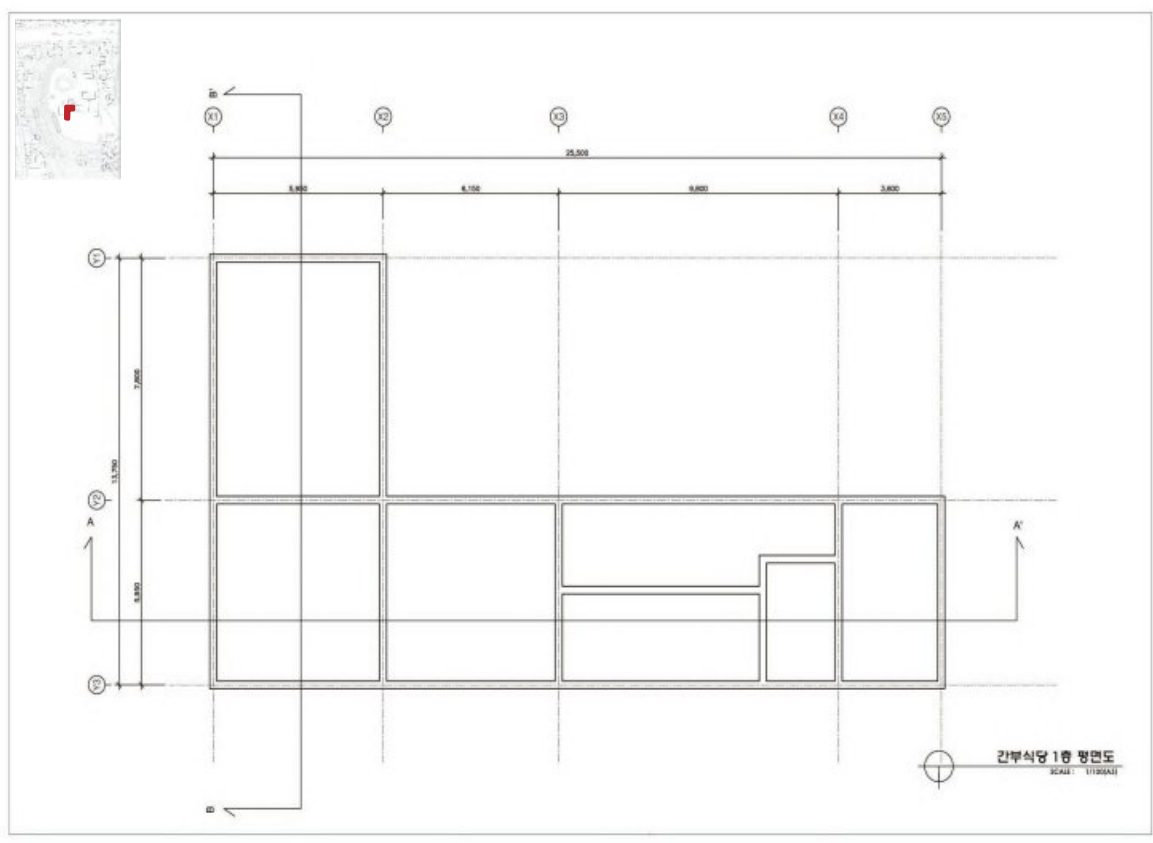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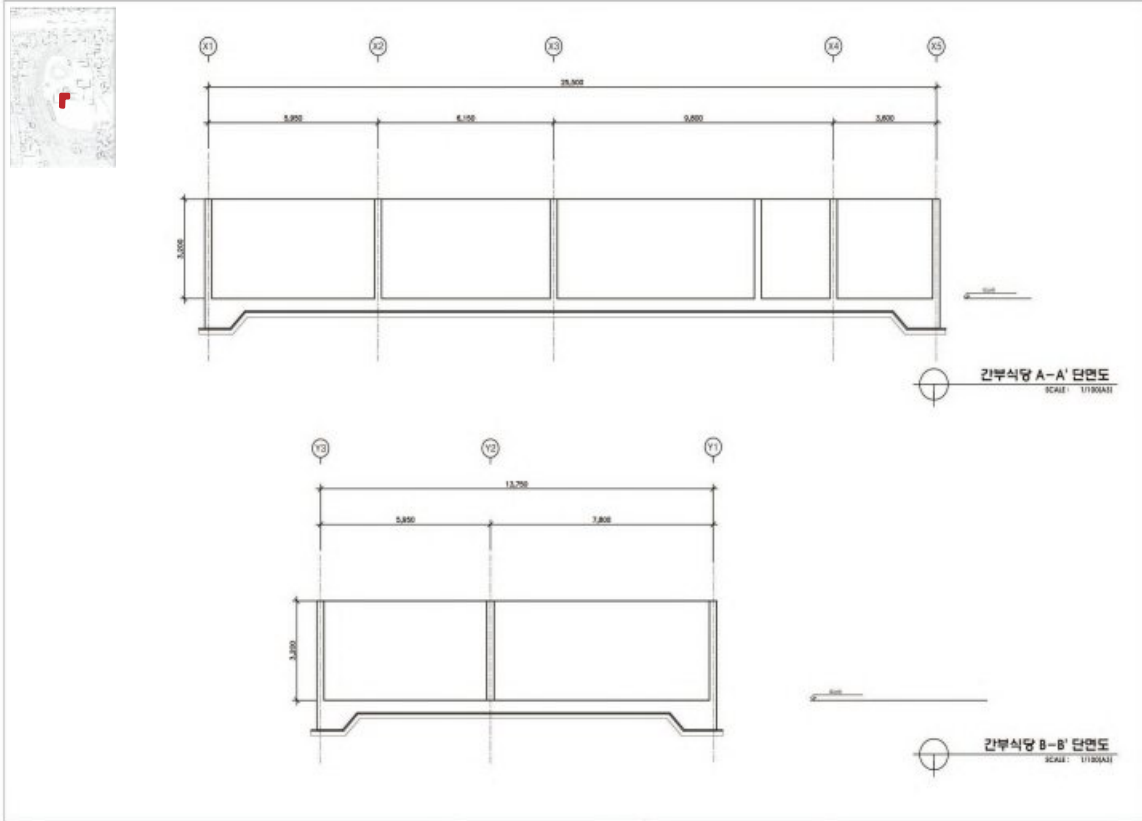
자동차정비소





간부식당





감사합니다

505보안부대 2차 집담회 - 발표 II

5·18 기억의 공간과 미래세대의 공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훈 소장



5·18 기억과 미래세대의 공감

김성훈(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 “꿈의 공원”이 추구하는 상(象)
 -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꿈 같은 아픈 역사(5·18)를 잊지말자는 의미를 담다
 - 광주다운 깨어있는 시민을 꿈꾼다는 의미를 담다
 - 미래세대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다는 의미를 담다

- 미래세대가 5·18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 ‘과거 아픈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 VS ‘지금 시민이 행복을 누리며 공감하는 공간’
 - ‘민주주의를 지켰던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 VS “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참여하는 공간’
 - ‘군부독재에 의해 상처입은 5·18 가족을 위한 치유공간’ VS ‘경쟁에서 넘어진 아이들까지 치유하는 품넓은 공간’

- 꿈의공원을 조성방향에서 생각할 것
 - 국군통합병원와 연결시키는 메커니즘
(예, ‘산책로’를 하나로 공간 연결, 과거와 미래적 가치를 연결등)
 - 꿈의 공원은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놀면서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계속 순환시스템으로 조성

* 일본의 청소년 꿈의 공원 조성에서 참고할 부분

1.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들 때 행정이 열린자세로 청소년과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점.
2. 기본 시설만을 만들어 놓고 놀이 시설이나 자유공간 등에서 청소년 스스로 창작하여 만들어가는 계속 만들기 순환시스템

- 청소년, 시민, 행정과의 파트너십 정신으로 꿈의공원 추진
- 광주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에서 세계의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장
- 개원할 때 청소년이 안전하게 놀고 기본적인 것만을 갖춘 시설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창작공간

□ 꿈의공원에서 구현하려는 주제들

-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조성조례의 구현
- 역사를 기억하는 청소년 민주주의 배움터 청소년시민학교
- 어린이, 청소년의 자치적 공간과 놀 장소 만들기
- 부등교 학생의 자연 치유공간
- 급격한 환경변화와 미래세대가 요구하는 공간

□ 꿈의공원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본 공간들

- ① 참여공간 : 자치활동 및 교류공간, 동아리 연합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공간
- ② 지원공간 : 교육장, 스튜디오, 휴게 및 공유공간, 협업실, 사무 공간등
- ③ 코워킹 창작공간 : 프리스페이스(모험놀이터), 메이커스페이스, 텃밭, 전천후 스포츠클럽

□ 코워킹 창작공간이란 계속 만들기 순환시스템이다

- 1단계 : 자유롭게 놀기, 체험하기
- 2단계 : 어떤 것이 하고 싶은지 상상하기 ⇐
- 3단계 : 모두 함께 시설을 만들기 ↑
- 4단계 : 사용하며 놀기, 체험하기 ⇒ ↑

□ 소소한 개인적 아이디어 작성해보기

- 1) 5·18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센터는 ‘505 청소년센터’로 하면 어떨까?
- 505 보안부대의 공권력이 시민들에게 자행한 만행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

2) 505보안부대와 국국통합병원부지가 하나로 연결된 숲길을 조성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 순례자의 길’을 브랜드화 하자.

- 광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명상과 치유하는 코스

3) 505보안부대를 꿈의 공원 조성시 기존 시설 활용방안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내무반(숙소용도)은 타지역 청소년과 교류공간인 청소년게스트하우스, 부대장 관사(권위자치) 부지 일대는 청소년센터, 본관부지는 지형을 살려 모험놀이터, 연립관사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텃밭등 창작공간



505보안부대 옛터 배치계획안(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고서)

505보안부대 2차 집담회 - 발표 III

기록과 예술의 경계에서

-505보안부대 옛터 사진과 전시를 중심으로-

목요사진

엄수경 작가



505보안부대 집담회
2018년 10월 31일



기록과 예술의 경계에서
- 505보안부대 옛터 사진과 전시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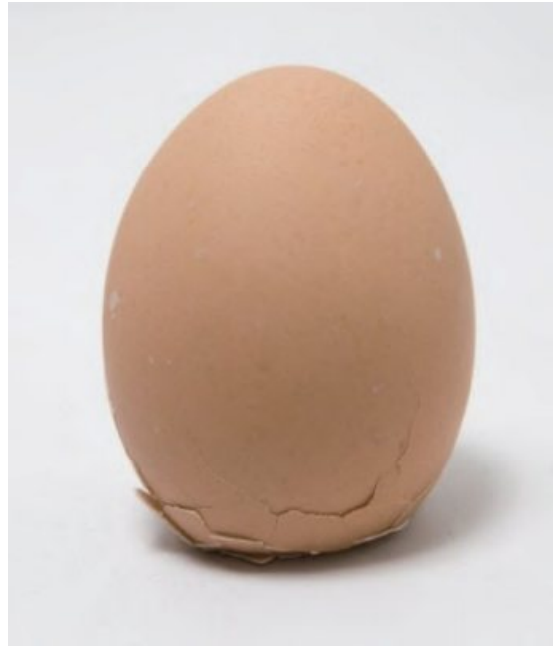
엄수경 (목요사진)

목차

- i. 505보안부대 본관 개괄
- ii. 사진이란?
- iii.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사진
- iv.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사진 차이점
- v. 기록과 예술의 경계
 - 505보안부대옛터 사진과 전시를 중심으로 -

콜럼버스 달걀 발상의 전환

“누구나
찍을 수 있으나
또한 누구나
찍지는 않는다!”



505보안부대 본관 개괄

도심 속 섬 505보안부대 옛터

5·18사적26호

☞ 1974년 군정보부 들어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16(쌍촌))

- 초소를 따라 수림 조성

(밖에서 안이 드러다 보이지 않음)

☞ 2005년 군정보부 이관(북구 오치동 31사단)

- 광주광역시 국방으로부터 양여방식으로
소유권 가져옴

☞ 2007년 6월 5·18사적지 26호 지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생생한 역사현장으로서
가치 인정)

- 부지 3만 8459제곱미터, 건물 16개 동

505보안부대 옛터 본관

- ☞ 본관 지상 2층, 지하 1층
 -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건물 내부 1개, 건물 외부 1개
 - 건물 외부 계단 폭 1미터 정도, 12계단
- ☞ 방 크기 다양한 지하실 8개 방
 - 내부계단으로 내려가 왼쪽 1개 방, 오른쪽 7개 방, 화장실 1개(남자변기 2개, 여자 변기 2개)
 - 가장 큰 방 가로 2미터, 세로 4미터 30센티
 - 가장 작은방 좌불상처럼 가부좌(높이 140센티, 가로 150센티, 세로 162센티)-명노근 교수 1주일 갇혀있었음. 3사람이 함께 갇혀 있기도 함
- ☞ 3개 방만 반지하형 유리창(빛이 잘 들지 않음)

505보안부대 본관 - 2층 건물



505보안부대 본관과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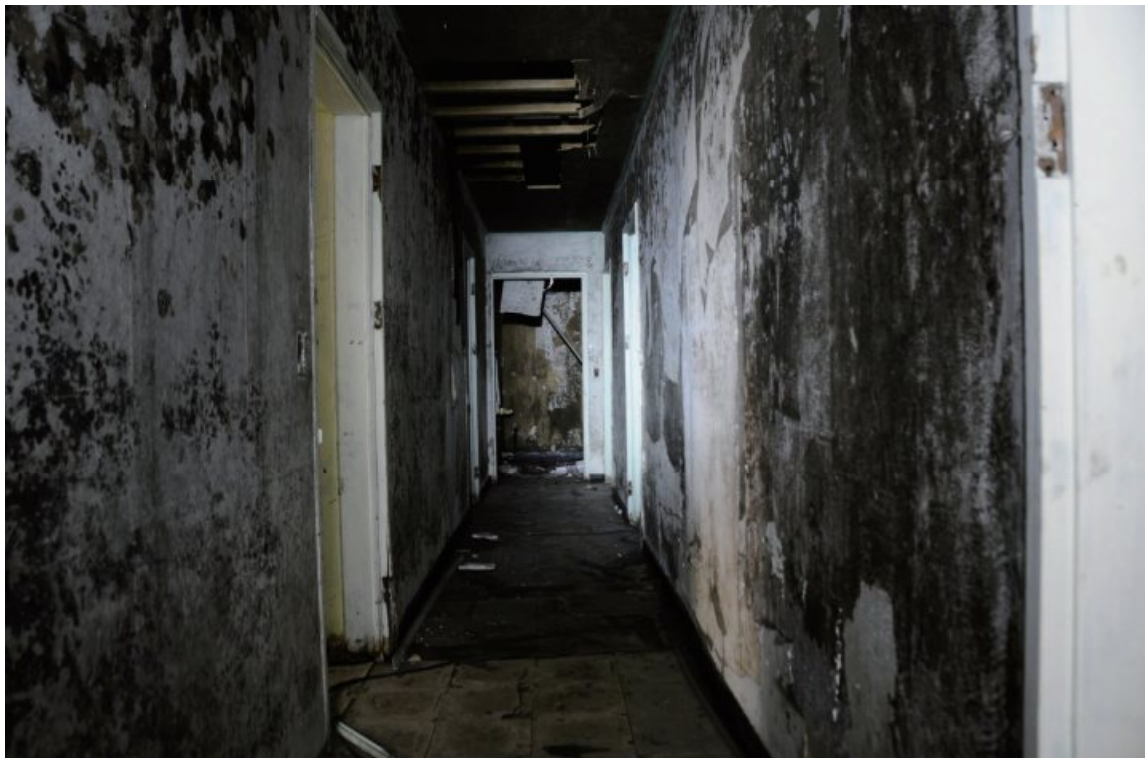
지하로 내려 가는 내부 계단



지하로 내려 가는 외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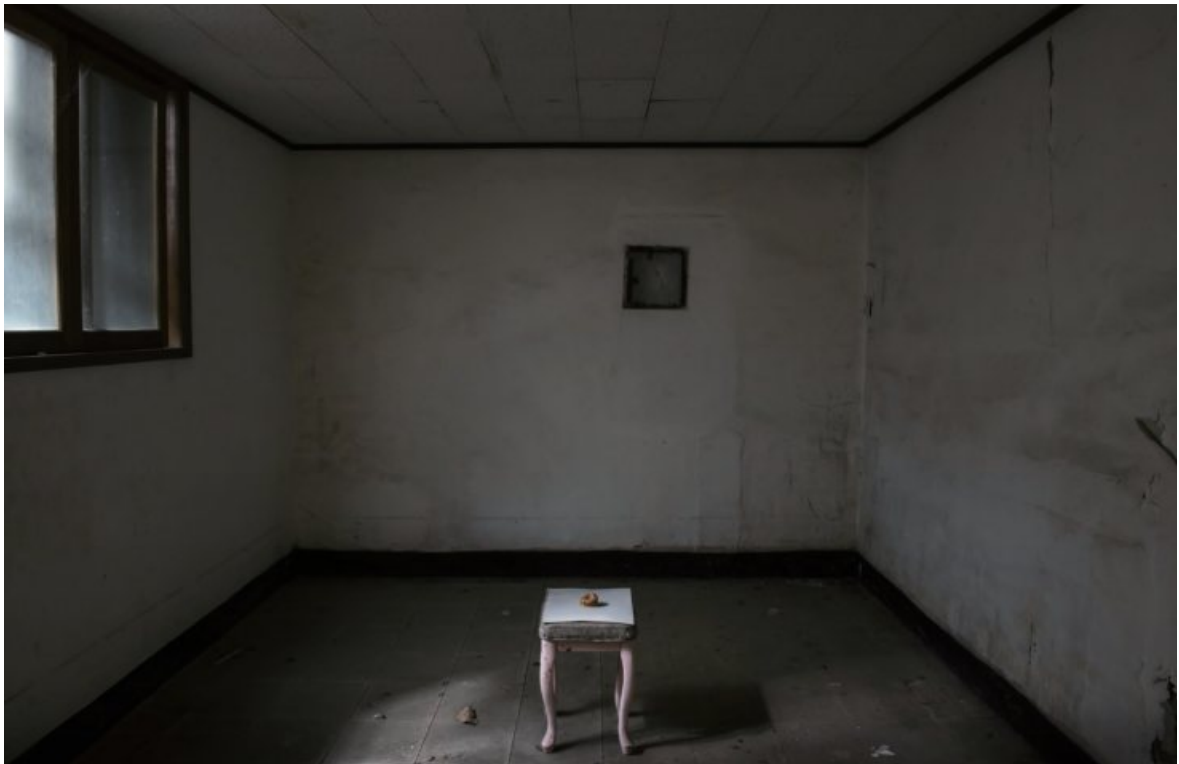
지하 오른쪽 7개 방



지하 오른쪽 7개 방



지하 왼쪽 가장 큰방



ii. 사진이란

1. 사진은 완벽한 언어다!

파이닝거 - "사진은 가장 완벽한 **상형언어**"

- ☞ 전달하는 방법에서 자연언어에 비해 **직접적**
- ☞ 언어의 추상성에 비해 **구체적**
 - *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 만족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함(관람자 몫)
 - *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상상력을 앗아가기도 함
- ☞ **국경 초월** - 이미지로 국제적 소통

2. 사진의 위치

- ☞ 미술과 사진의 차이
 - 시간성, 공간성 문제
 - 회화적 평면과 달리 사진은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유동적 평면 공간**
 - 사진은 인간생활이라는 문학적 내용에서 공통점
 - * 사진은 **평면예술** 문학은 시간예술인 점이 다름
- ☞ 사진예술은 미술과 문학의 중간에 위치한 독자적 예술양식(두 장르 사이에 있음)

iii.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사진

1. 사진을 찍는 목적

☞ 실용적 목적 (응용사진)

① 자료사진

- 학문, 기술 등 전문분야 보조적 자료
(의학사진, 생태사진, 인문과학 사진,
기념사진, 증명사진 등)
- 자료사진은 엄격한 객관성 완벽한 복사

① 자료사진 1897년~1900년



호랑이 사냥꾼

1915년 영국 런던에서 발간된 책
<아시아와 북미에서의 수렵>에 수록
1903년 전남 진도에서
호랑이 두 마리를 잡은 일화 기록



② 보도사진

- 대체적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도 함
- **신문, 잡지** 등 시각적 기사로서 사진
- 포토저널리즘으로 번역
- 우리 현대사의 수많은 역사적 장면 기록
- **객관성 중요**(촬영자 주관보다 사진에 비중을 둠)
- 소비층 사회전반
- **서술성** 지녀야 함 (보도 내용 무엇이고, 왜 보도하는지 **한 장**으로 알 수 있도록 함)
- 부지런함 (사진은 발로 찍음 - 요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쇼핑을 하듯 작업하기도 함)
- 보도사진가는 **사진가이기보다** **기자의식 중요**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



5월 24일 거리로 나선 시민(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임응식 - 1912~2001(부산)

- 임응식 사진작가는 한국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 함 (사회 기록, 휴머니즘을 잘 들어냄)
- 사진이 미술의 하류취급에서 하나의 예술로 자리매김
- 사진 본질 기록성과 사실성 중요시 함

☞ 임응식 구직 서울 1953년 작 논란

- 광고사진으로 발표된 것 아니라 기록사진에 편승
- 시대적 실업의 심각성 보여주는 연출한 광고사진

* 좋은 사진이나 순수한 리얼리즘사진은 아님



구직 서울 - 1953
광고사진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됨



1950년 전쟁고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1908~2004(프랑스)

“나는 사진으로 그림을 그린다”

☞ 결정적 순간 (빛, 구도, 감정 일치된 순간)

- 보도사진이 예술로 인정 받는데 큰 기여
- 사진의미, 기술, 효용에 대한 핵심내용
- 연출이 아닌 찰나의 순간을 기록
- 플래시 사용하지 않고 표준렌즈만 사용



로버트 카파-1913~1954(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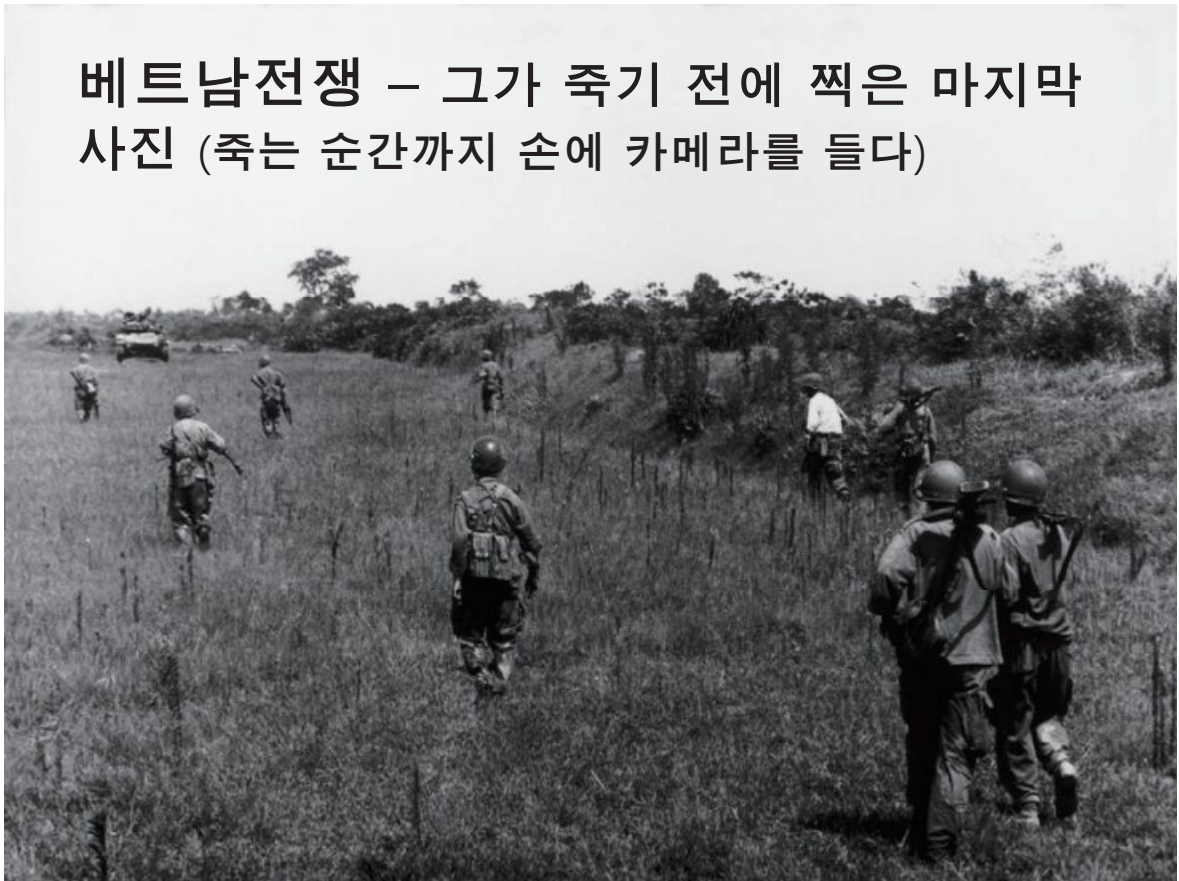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세기 전쟁 보도 사진작가
- 에스파냐전쟁,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쟁, 제1차 중동전쟁,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취재
- **보도사진이 예술로 인정** 받는데 큰 기여
- <어느 병사의 죽음> - 풀리처상 수상, 종군기자
명성 얻음 (조작논란에 시달림-조작이 아님 밝혀짐)

로보트 파카 <어느 병사의 죽음>



베트남전쟁 - 그가 죽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죽는 순간까지 손에 카메라를 들다)



③ 광고사진

- 자료사진과 광고사진 구별은 없음
- 광고사진은 실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
(작가의 개성 능력 필요)
- 특수한 기법 사용
- 정보 획득 목적
- 수용자 중심

애니 레보비치 - 디즈니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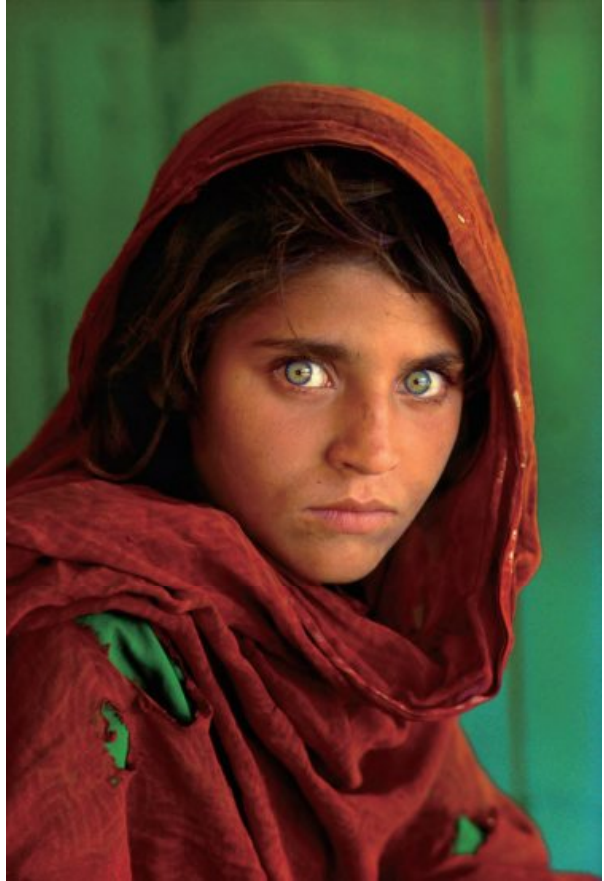
합성사진 - 사진이라는 도구를 이용 자신의 상상력 표현
합성사진임을 알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사슴, 범선 등



스티브 맥커리 - 1950년~(미국)

- 눈에 담긴 이야기를 중요시하는 사진작가
- 다큐멘터리 보도사진가
- 화려한 색감, 예술성+다큐성
-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에 게재된
<아프간 소녀>(1984)로 풀리처상 수상
- 색조변경, 노출변경, 피사체 지우거나 옮기거나
새로 넣은 합성사진 포토샵
- 후보정 통해 사실과 순결성 왜곡하지 않는다면
포토샵 허용(찬/반)

아프카니스탄에서
찍은 이 소녀 사진으로
스티브 맥커리는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반열에 오름





☞ **순수사진** - 자기표현을 위한 창작 목적

① 시리어스 포토 (심상사진)

- 예술로서 사진으로 진지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진, 느끼고 생각한 바를 충실하게 표현할 뿐 다른 사명이나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진지한' 사진

- 작가 중심 사진

② 기록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사진

- 인간 생활 기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 인간을 다루고 생활을 다루는 사진, 인간과 자연과 관계, 인간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조형적 사진까지도 다큐멘터리사진에 포함

iii. 보도사진과 다큐멘터리사진 차이점

- 다큐멘터리사진은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음**
- 그 사건이 뉴스사진(보도사진)이 지닌 특수한 의미보다 어떤 **보편적 의미**를 지녀야 함
- 보도사진은 표층적, 다큐멘터리사진은 심층적
- 보도사진은 나열적, 다큐멘터리사진 종합적
- 보도사진은 객관적, 다큐멘터리사진은 주관적
- 자기표현에서 주제가 인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사진가 개성과 창의력이 바탕)



☞ 보도사진
나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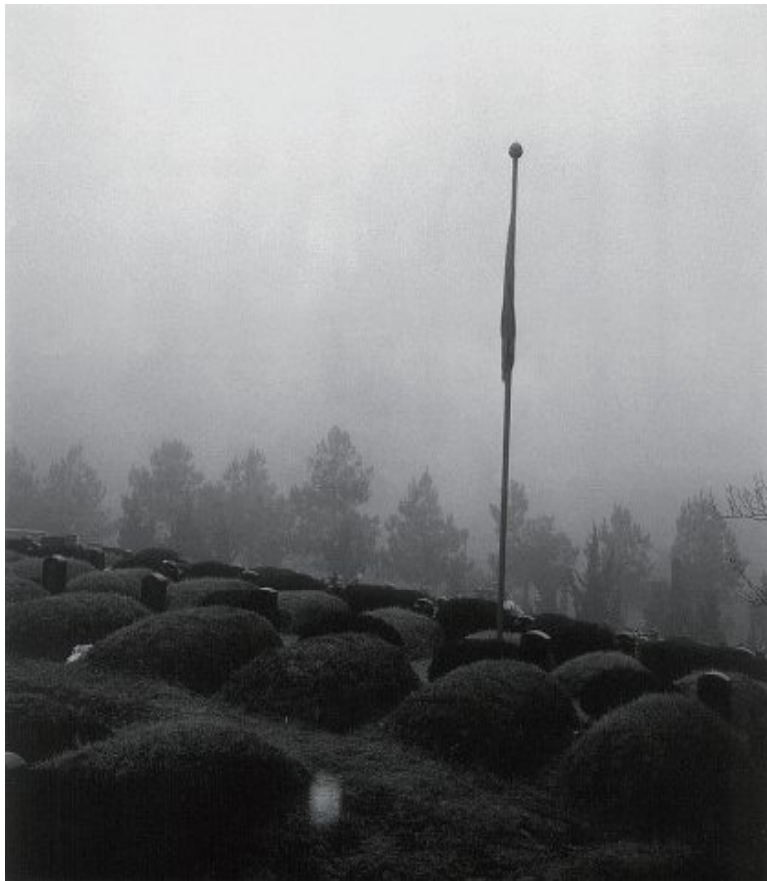
이상일 다큐멘터리 사진가

- 1980년 5·18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사병
- 상부지시에 따라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시민으로 위장하고 '폭도와 불순분자' 색출 증거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
- 1980년 이후 사진학과 입학 5월 다시 경험
- 1985년 대구에서 밤차를 타고 망월동을 찾음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었던 자신을 알아볼까 봐 밤에만 작업 함)



☞ 다큐멘터리 사진

이상일 /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옛 5·18 묘역



이상일

'망월동' 연작

으젠느 앳제 - 1856~1927 (프랑스)

- 파리 뒷골목 수줍은 영상시인
- 사진이 막 태동하던 18세기 후반 빛 바랜 파리뒷골목 사진(아우라)
- 파리의 화려한 단어보다 가슴으로 다가온 풍경
- 앳제가 죽었을 때, 에봇의 파트너 미국인 줄리안 레비 1,500점 네거티브와 8,000장 인화물 구입
- 당시에 앳제는 화가에게 사진을 팔아서 생계
- 현재 이 사진들은 MoMA(뉴욕 미드타운 현대미술관)에 소장
- 으젠느 앳제는 사진을 화가에게 팔기 위해 시작
- 기록사진인 동시에 예술사진을 찍길 소망하는 것
균형 잡힌 사진가들 꿈 - 앳제는 그 꿈의 모범

1925년 작



1900년 작 / 1920년 작



iv. 기록과 예술의 경계

- ☞ 505보안부대오티터 사진과 전시를 중심으로 -
 - SOS 풍경에 관한 보고서 505"는 그곳, 505보안부대 오티터에서 새어 나오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임
 - 카메라를 통해 역사 흔적과 한 조각 빛을 찾아낸 작업 결과물
 - 목요사진 다섯 사람은 그곳에서 보내오는 SOS를 수신, 각자 시각으로 응답하여 잊혀져 가는 집단기억을 소환하고, 80년 오월 속 공간에 대해 재조명한 것
 - 38년 전 그 현장을 처음으로 찾아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 인터뷰 영상과 고문 받았던 지하 방 재현

- 505보안부대오텀터 본관 "WRAPPING505"는 포장된 건물이 주변 공간으로부터 분리 고립되는 효과 - 관람자로 하여금 다르고 새롭게 그 건물을 바라봄으로써 기억을 환기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한 작업
- 낮설게 하기, 새롭게 보기
- 고립시킴으로써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방식
- 사진을 볼 때마다 다른 말들이 새어 나오게
- 텍스트 찾지 말고 사진을 읽기
- 사진은 말의 장식이 아님(사진 자체가 언어다)
- 그림, 글은 상상력, 카메라는 직관력을 표현하는 도구

505보안부대오텀터 본관 래핑





김형주 <505를 읽고 쓰다>

그 집을 들어설 땐 몇 줌의 씨알을 몸에 지녀야 했다
 뭉개진 기억의 벽이며 방바닥이며 창틀 틈새에서 희미
 하게나마 새어 나올지도 모를 조난 신호에 답하기 위
 해서였다고 하자 그 집을 들어섰을 땐 이미 붉은 방
 어떤 관료의 시간은 흐려졌고 바람이 소루쟁이를 지나
 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서둘러 식탁을
 차렸고 망각의 성찬을 즐겼을 것이었다

태산목 주먹 같은 꽃이 하얗게 주렁거릴 어느 날이었
 을 것이다 아니 폭설로 온 집이 하얗다고 주장거릴 어
 느 날이었을 것이다 지하실 붉은 방에 이르러서야 까
 치의 굳어버린 눈꺼풀을 피하지 못할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주검으로 부서진 숨의 뼈를 수습하려 셔터를
 눌렀을 것이다 태산목 주먹 같은 꽃은 하얗게 떨어졌
 을 것이다 특



달걀 -
국가폭력에
희생 당한 생명
권위주의, 하나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얼굴성 - 도리도리 얼굴 지움
다원주의, 화이부동, 다원성 추구



엄수경 <기억을 호출하다>

처음, 들여다 본 그 집의 속살
발 밑을 기어오르던 알아들을 수 없던 소리들의 반란
담쟁이 한줄기 두런두런 걸어 나와 발목을 잡았다
잔혹한 시간 직면할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푸르디푸른 용단 사이로 발가락이 보였다,
손가락이 보였다
어깨를 맞대고 팔십년 오월을 붙들고 있던 담쟁이덩굴
아직 떠나가지 못한 넋들이 한 풍경 풍경이 되어
내게로 와 말을 걸었다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색깔로
때로는 냄새로
불안한 바람이 뼈걱뼈걱 긴 숨을 토해낼 때
셔터소리 찰칵,
내 심장으로 떨어져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깨진 유리창 내부, 생명의 순환은 현재진행형



햇볕 아래 보색으로 보여 주는 삶과 죽음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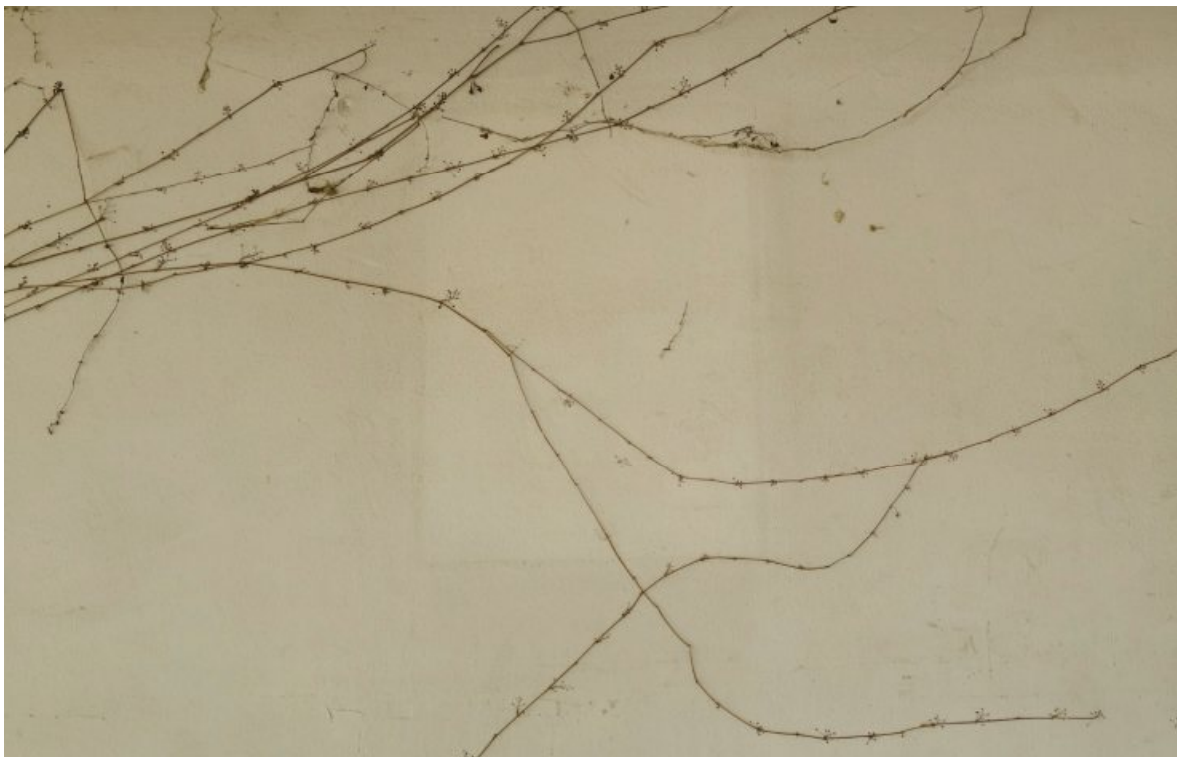
오형석 <시간, 공간 그리고 다른 기억>

어떤 이에게는 삶, 생활의 공간이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땅, 바닥만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기억들
삶의 공간이었던 그 흔적들을
38년이 지난 오늘 들추어 본다
이제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함께 가기를.....

벽에 자국을 남기는 기억의 흔적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너와 내가 갖는 기억은 다름



임성국 <맞아, 그 곳이었지>

떠오르는 기억들

조대 뒷산

mbc 방송국의 불길

금남로의 탱크

그리고 상무관!

발길은 지하실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젠, 담담히 외부를 스케치하고 있을 뿐

모든 흔적들, 장소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현장



생장점 잘린 나무 군부독재 실상



장준식 <기억의 조각들>

우리는 그렇게 끌려갔고
그들의 웃음 속에 동물이 되었다
그리고 사라져갔다
한줌 권력
몇몇의 사심 속에
그곳마저 잊혀져 가고.

소환된 기억의 조각



조각 맞추기는 텅 빈



거울 - 자기를 보고, 자기를 들여다 보는 것



신문 - 세상을 둘러다 보는 것



증언영상을 통해 본 5·18 기억

-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기억
- 각자 마음을 따라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
- 세세하고 복잡한 정보는 생략해 단순하게 정리된 정보 위주로만 기억
- 친숙하지 않은 기억은 왜곡되거나 생략됨
- ‘기억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고스란히 꺼내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진 틀-스키마(schema)-에 맞추어
- 완벽하다고 확신하는 기억에도 문제가 있는데 기억을 재구성하기 때문
- 머릿속에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와 기억을 다시 쓰는 연필이 함께 존재

- 증언자 기억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님
- 5·18을 기점으로 이전 삶과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인 역사를 통해 집단 역사를 유추
- 우리는 스스로 기억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불리한 기억 지우기)
- 기억의 현재적 의미를 상실한다면 그것은 죽은 기억, 강자를 위한 또 하나 왜곡
- 불리하든 유리하든 총망라

505보안부대 보존이 중요한 이유

- 기억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 소통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기념관, 기념비는 죽어 있는 과거를 그저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와 함께 숨쉬는 공간
-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하는가. 그것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의 문제를 과거에 비추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이기 때문
- 505보안부대 보존 중요한 이유 기억의 보존 장소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의 실패를 다음 시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합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중에서

기록과 예술의 경계

- "사진은 언어다. 시의 행간을 읽어내듯 사진도 그렇게 읽어라!"
- "SOS 풍경에 관한 보고서 505"는 국가폭력, 기억 투쟁, 사진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음
- 사진 너머의 것을 읽고 봐주길 소망
- "SOS 풍경에 관한 보고서 505"(기록이란 차원) 주제 의식에 묻혀버리는 전시가 되지 않기
- * 기록성 + 예술성 추구
- 오월 당시 사진(나경택 보도자료, 기록자료 마저 오늘날 예술로 자리매김한 예라 하 수 있음)

목요사진은 게릴라적 사진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각자의 마음에 느닷없이 출몰하는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상에
상투적이고 관성적인 틀을 들이대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틈을 만들고
거기서 새어 나오는 소리에 주목한다.
우리의 감각이 충분히 확장될 때
느껴질 그 떨림을 예비코자 한다.
그 떨림을 서로 공유하며 세계에 대한
사유의 폭을 점점 더 넓히고자 한다.
우리는 목요사진이다.

